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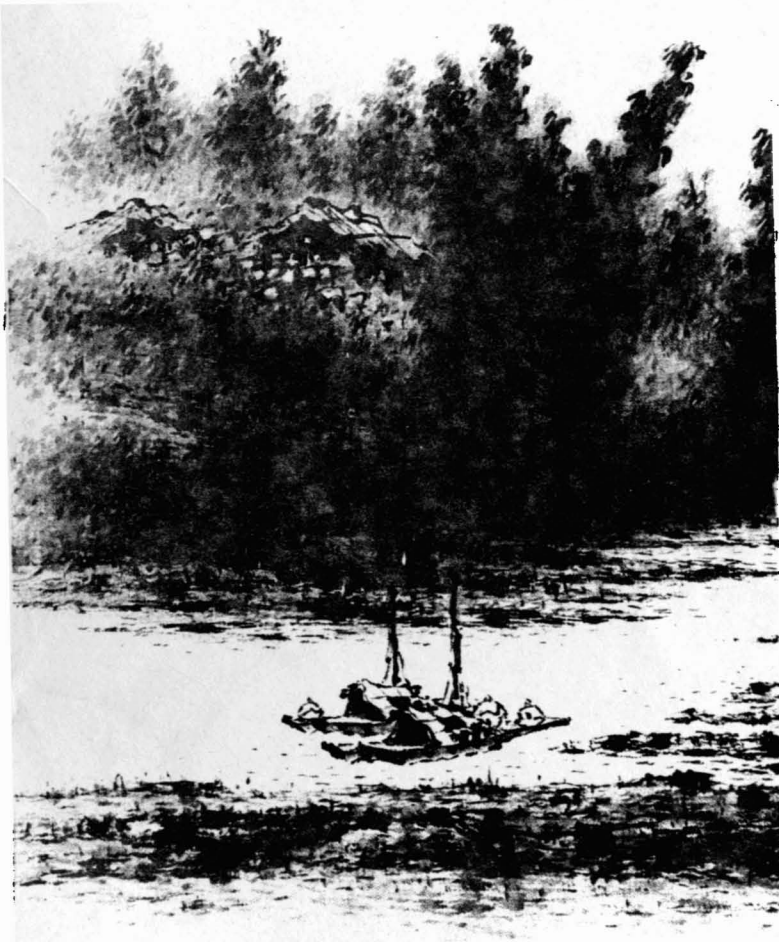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Paul H. Shin, Publisher
Kun H. Park Editor
Phone: (206) 362 - 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목 차 —



Summer Scene, 1966
Yi Sang-bom, Chongjon (1897-1972)

- 『권두언』 자녀 교육에 보람을 갖자!
제 1회 어린이 야유회 향연
- 1983년도 ETHNIC GROUP FESTIVAL 에서
한인회 3등 입상
- 『공 고』 8·15 경축 기념행사
- 『공 고』 시애틀 한인학교 여름야유 캠핑
- 『공 고』 시애틀 지역 기독교 연합회
8·15 경축 체육대회
- 『공 고』 축우회 주최 제 1회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 『수 상』 젊은 이들에게 신 호 범
- 『수 상』 어느 “포스터의 환상” 조 성 옥
- 『동 화』 젊어지는 샘물

* English Pages

Protest letter to times Inc. Paul H. Shin
Dear Young friends Paul H. Shin
Korean-U.S. Relations Donnie A. Kwak

7 July



HANIL KOREAN RESTAURANT

한일각



한국의 정취를 살리며
아름답게 단장된
한국식당

(6월8일 채널 5 아침 9시에 한일각음식 소개되었음)

한일 가족을 찾습니다.

● 호스테스 0명

● 카테일 웨이트레스 0명

한일각 대표 신 응 호

(시애틀 차이나 타운내)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 587 - 0464 · 0465

『권두언』



자녀 교육에 보람을 갖자!

“너희가 만일 너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학가 너의 머리에 임하리라.” 어느 고전이 분명히 말한다. 이 선언은 우리 자녀를 갖은 부모들에게 좋은 경고와 지침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좋아하는 근대의 심리학자요 또한 교육학자인 듀이 (John Dewey)는 “인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한” 가능성(Possibility)으로서 탄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우리자녀들은 고를 줄 지도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를 재강하여주는 이론이다. 이는 또한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선으로 나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만일 선으로 이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악으로 영향을 받아라 하게 된다는 절박한 사실을 지적하여 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자녀를 갖은 우리 부모나 또 젊은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책임을 새삼 느끼게 되리라고 본다.

“아동의 마음은 그 위에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석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느끼고 반응하고 선택하며 스스로 서려고 하는 활발한 활동체”라고 현대심리학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세계 어느 민족에 못지않게 교육열이 강한 부모들이며 지나칠 정도로 집요를 받고 있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이 열의가 때로는 우리자녀들의 모의와 감사를 따기론 커녕 내 대와 심지어는 원망을 받게 되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양용 보게 되며 의아하게 느끼는 것이다.

* * *

아동의 마음이 석판과 같아서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유로이 부각시켜 줄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실은 그렇지 않은 데서 우리의 영의와 선의의 노력도 어쩔 수 없이 담담하다고 보겠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오늘날 젊은 이는 도대체 무관심이니 한탄할 노릇이 아닌가 하고 누구나 말한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마음은 자기주체를 가지고 자기 선택을 행사하여 보려고 하는 움직이는 활발한 활동체라고 우리 생각을 일단 달리하여 보자 무엇이 우리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명령과 지시와 강요 같은 것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애정과 인내와 끈질긴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떨까? 우리자녀들은 자신으로서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여볼 때 지금까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대하여 오던 부모로서의 태도를 다시 평가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언리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 언리로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라” 라는 또 다른 그
 서의 말이 있다면 이는 우리 자녀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지침이 아닐까? 물론 그 큰 것을
 가리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언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하여 주되 그 언리를 사용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과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최대한으로 입입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
 론이다. 이 이론은 역대 그 교육학과 심리학이 주장하는 두 중요한 교육이론에 입각하
 여 나올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 대한 가장 적절한 지침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물론 그 큰 것을 가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언리를 우리자녀에게 제공하여 주고 그 언리를 스
 스로 이용하도록 의욕을 줄수 있는 우리들 부모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가능할수 있을가? 여기
 한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가시다. 우리는 인주출 단계를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는 사퇴
 이니, 돌이키, 버디니, 유식에 썼다가 그리고는 마지막하루를 교회에 가서 신을 외치는 시간이
 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것 같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몇가지 특수한 목적에 할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따로 할애한것은 못본것 같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의 교육에 쓸시간을 특별히 따로 적어두고 그 시간에는 자녀교육에 관한 생각과
 이나 프로그램만을 진영하고 다른것은 일체 불어안다면 우리의 자녀교육에 진보가 있지 않을가?
 자녀에게 가르칠 언리를 선택정돈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며, 동시에 어떻게 하면 부모된 우리로서
 이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친 언리를 직접 사용하여 보도록 의욕을 느끼게 하고 용기를 주게할수
 있게는 지반성도하고 속고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우리부모들이 따로 만들어 둔다면
 어떨가? 아로가 아니라도 좋다. 몇시간이라도 좋을것이다. 다만 그 시간만 그렇게 평하
 여두고 그 시간에는 다른것은 일체 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만 생각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진영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주출에 아들 아니면 하루의 몇시간을 자녀 교육의 문제로 쓴다면 확실히
 두서있는 교육의 착상이 떠오를 것이다.

* * *

6월은 우리 자녀들이 인년의 학교수업이 끝나서 최종의 평가를 받는 달로서 우리자녀들이 일
 년을 반성해보는 달인것 같다. 그러면서 이달은 국민학교로 부터 대학에 있는 우리자녀가 풀
 었을 아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시학의 달이기도 하다. 어쩌면 6월은 우리자녀 교육에 있어
 서 이모 저모로 뜻있는 달인것 같다. 교회 및 여러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일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연인되는 이달에 어린이를 위한 야유회를 갖어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할일이
 움직여보고 발표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이 지역내 우리
 교포사회가 여러모로 안정되어 우리자녀와 청소년의 교육에도 전지인 시간을 아껴보려는 어우
 를 보이는 것이라곤 해서하여도 좋을것이다. 오히려도 이러한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이 계속
 마련 되기를 희망하거나와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어떤 언리가 도움이 될것인가. 몇 개를
 모아 보았다.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애쓰는것 보다 더 절거운 일이 없는
 것이나 교육은 전문성을 내포한것으로서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개선을 가져야 하는 것에
 로 거음과 아울러 중한 책임의 노고도 잊지 않는가 싶다. 우리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들에 다
 같이 관심을 기울일것을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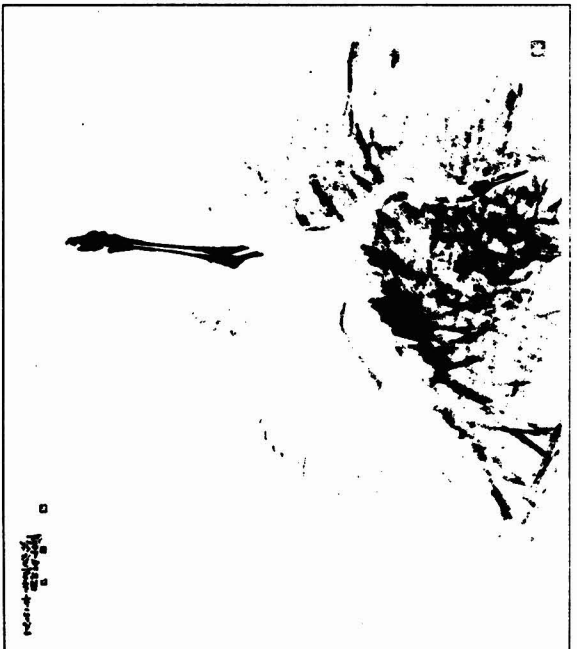


『축시』



반 앞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노다.
 대화가 숨 쉰다.
 장이 흐른다.
 태양이 분한다.
 갈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신성한 그 은혜로
 우리의 땀과 사랑이
 永生하다.

1982 써머들서 **불** **수**





제 1회 한인회 주최
어린이의 날 행사
야유회의 이모저모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Discovery Park
에서 15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다채
로운 프로그램과 무점한 상품을 마련하고 한인회 주최
첫 야유회를 갖었다.

이날 모인 한글학교 학생, 한국학교 학생(시애틀 장
로 교회 부설) 및 일반 교포 자녀들의 흥분속에 간단한
개회식에 이어 성화릴레이, 국자릴레이, 토 흥겨운 게임
을 시작했다.



이날 준비된 사랑잡기, 사탕 따먹기, 보물찾기, 물주
머니 던지기, 줄타리기, 쓰레기줍기 게임등 10여가지의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무점한 상품과 함께 한
인회가 마련한 상장에 1등에 푸른색 리본, 2등에 붉
은색 리본, 3등 초록색 리본을 개별또는 단체 우승에
모두 나누어 주었다.

5세 어린이 에서부터 중고생 및 학부모 모두에게
즐거운 야유회와 뜻깊은 어린이 날의 향연을 마련해준
이날 프로그램은 관 총세 한인회 부회장, 백경숙 한인
학교 교감이 맡아 계획, 진행하고 야유회 장소 장식 및
환경 정리, 프라카드와 표어작성및 준비, 야유회 경기장
준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품및 상품의 준비등은 이 신
남(체육부장), 허 권(홍보부장), 조 성욱(총무부장),
오 계희(한인학교장)등 한인회 임원이 맡아 수고 하였
다.



Shorline Comm. College의 정 화사 작

생회장및 여러 학생들,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경기
진행과 아동들의 지도를 담당하여 주었으며 함께 오신
학부형들도 직접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한때를 가졌으
며 특히 한국학교(시애틀 장로 교회 부설)교장이신 김
간난 여사께서 오셔서 격려하여 주었다.



이 어린이 야유회로 한국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단체
적인 야유회활동을 가져보는
기회로서 한국 어린이로서의
인식과 또한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

또한 한인학교 학부모,
회의 박 귀희 회장, 오 확실
부회장을 비롯한 이 선혜씨등
이 음료수를 마련하여
참가한 어린이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고 활발히 운동할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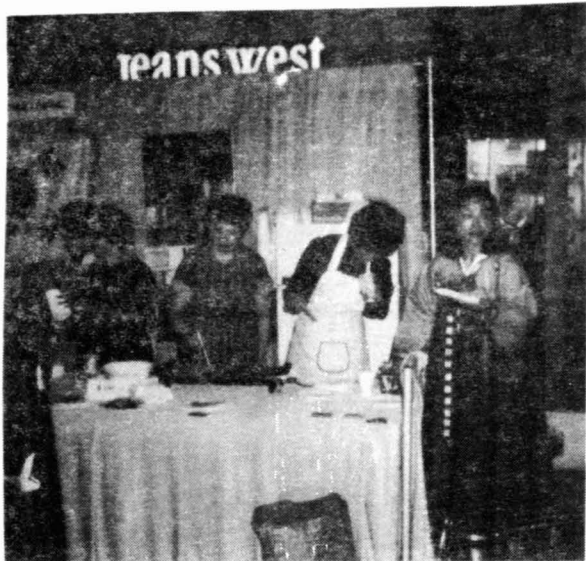
『에스닉 그룹 페스티벌 1983년도
(ETHNIC GROUP FESTIVAL)』
에서
* 한인회 3등을 차지하다 *

6월 24일 금요일 부터 26일 일요일 까지 3일간 노스 게 이츠 쇼핑 센터에서 열린 Ethnic Heritage Council of the Pacific Northwest(태평양 서북미 인종 문화진흥 정의회)가 주관하는 Ethnic Fest(인종 커뮤니티 공예품 음식전시 및 판매) 행사에 참가한 한인회에서는 불고기, 만두 및 나물등 한국음식을 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협조로 무려 2,400여명에게 판매를 하여 순 이익금만 \$1,000.00을 올리는 성과를 보았다. 70여개국 100여 그룹이 참가한 이 기간중 30여만명의 관람객이 몰려 각국의 고유음식을 맛보고 공예품을 감상했는데 한국관 Booth앞에는 불고기를 맛보고 살려는 인파로 언제나 들끓었다.



한인회에서는 어렵게 2개의 Booth를 확보하여 한Booth에선 음식을 팔고 다른 Booth선 비데오로 한국의 고유문화와 자연 및 레크리에이션을 알리는 한편 영사관 협조로 얻은 많은 책자를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일간 자원 봉사자로 동원된 연 인원이 60 - 70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협조적이고 고무적이었는지 몰랐다. 특히 마지막 일요일엔 총영사관 직원 가족과 무역관 직원 가족 및 외환은행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불고기를 직접 굽고 판매를 하여 값진 봉사를 하였다.



이 행사준비와 진행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정이 넘도록 한곳에 모여 5천여개의 만두를 비즈며 밤참을 먹고 담소 한것이 타든지 신 호법 회장 및 역원 이사들이 손수 만두를 굽고 운반하며 노스 게 이츠 쇼핑 센터에서 불고기를 직접 굽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고기의 냄새를 찾아 몰려오게 하는 장면이 타든지 레크리에이션의 질서정연한 시범을 비데오로 보고 관람객을 놀라게 한것등 고포들간의 공지와 친목을 돈독히 하는 경험들이 많았다. 또한 많은 고포들도 한국 Booth에 찾아와 자원 봉사자들을 경력하고 또 판매에도 도와주어 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에스닉 그룹 페스티벌 1983년도
(ETHNIC GROUP FESTIVAL)』
에서
* 한인회 3등을 차지하다 *

3일간의 모든 활동을 심사한 주최측의 평은 한국Booth의 열성있고 협조적인 활동, 또 성공적인 고객들의 많은 유치들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가장 많이 보여준 점등을 고려하여 100여 그룹에서 3등의 평가를 내리주어 이도 또한 한인사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 3일간의 행사를 위하여 한인회 임원 전원과 이사 전원이 직접 간접으로 협조 수고 하였으며 이 행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봉사자들은 강 경중씨 부인, 강 동연씨 부인, 곽 종세씨 부인, 권 상규씨 부인, 김 석래씨 부인, 김 성일씨 부인, 김 홍기씨 부인, 노 명제씨 부인, 문 유기씨 부인, 박 진문씨 부인, 박 태호씨 부인, 박 한진씨 부인, 박 혜영씨, 심 씨, 손 옥봉씨 부인, 엄 도승씨 부인, 오 계희씨 부인, 오 준걸씨 부인, 유 대식씨 부인, 이 신남씨 부인, 이 신남씨 부인 언니, 이 익환씨 부인, 이 점래씨 부인, 이 정연씨 부인, 이 현기씨 부인 이 현진씨 부인, 임 광희씨 부인, 임 옥란씨, 장 부관씨 부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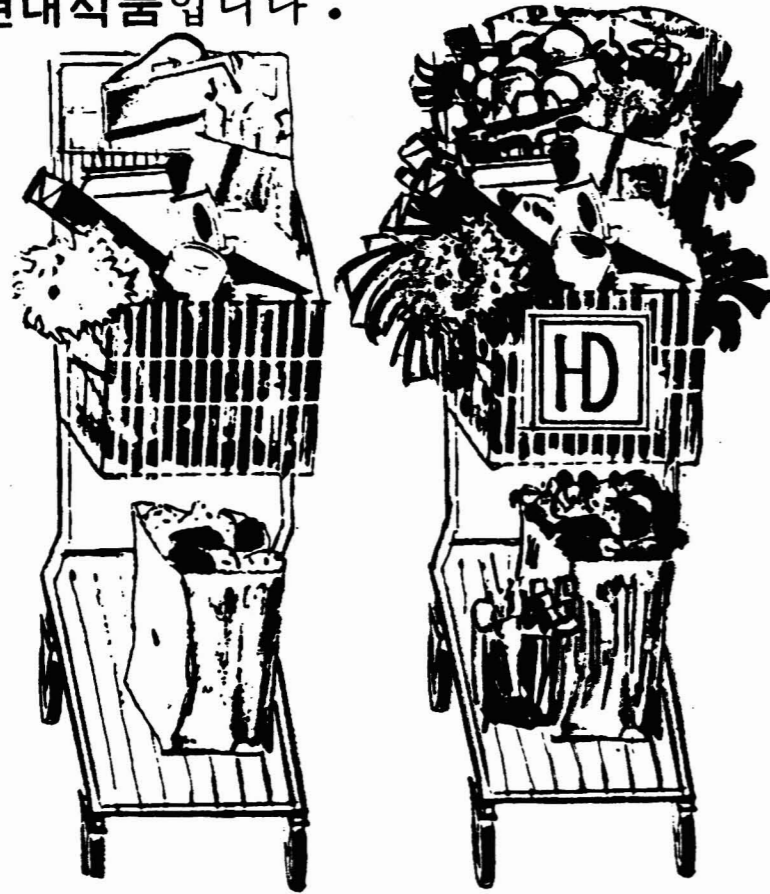


그리고 학생들도 이 행사중 안내역을 맡았는데, 권 현미, 이 남주, 한 미자 등이다. 특히 총영사관 공관장 및 단체장들이 격려 협조 하였으며 이 문수 총영사 부인, 박 부열 영사 부인, 김 옥 영사 부인, KOTRA 박인국 관장부인, 외환은행 영동지점장 부인, 외환은행 한 구랑씨 부인, 외환은행 서영규씨 부인들이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 직접 참여하여 협조하였으며 더욱 성황리에 끝내게 하였다. 한인회는 이 행사에 도와준 모든 분과 또한 음으로 양으로도 격려 하여준 많은 고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현대식품

가격 · 품질 서비스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같은돈으로 이같이 많은 장을 볼수있는곳이
바로 현대식품입니다.



*집에서 만든 찹쌀고추장 · 조선간장 · 된장
*소문난 김치 · 밀반찬류

Open 아침9시부터 저녁9시(년중무휴)

762-4792

10402 16th Ave S.W. Seattle, WA 98146

『한인회 공고』

시애틀 한인학교 여름 야유 캠핑

시애틀 한인학교 (교장 오 계 희)에서는 야외 캠핑을 준비하고 한국 교포들에게 야
외 공동생활경험의 기회를 주며 이와 아울러 한국어와 다른 문화의 새로운 여려면도 체
험하여 알수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문화의 그리고 미국사회에
서의 자기의 위치를 더 잘알수 있게하고 또한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
외 캠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 : 1983년 8월 18일(목요일) - 8월 20일(토요일) (2박 3일)

장소 : Ramble Wood Camp Site Sequim
State Park Sequim, Wa

* Olympic 반도의 Port Angeles 근방.

장소는 취침장소, 활동실, 확장실, 또 부엌, 식당 시설이
되어있으며 참여자녀들은 2박 3일의 야외 공동생활을 할수있게
됩니다.

프로그램 : (1) 야외 활동
(2) 실내 활동
(3) 일상생활에서의 한국문화 소개
(4)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의 사용, 학습

비용 : 자세한 비용 추후 발표

신청 요령 : Seattle Korean School
2611 125th st. N.E.
Seattle, Wa 98125

신청자는 50명 한으로 선착순으로 제한함.

상기 주소에 참가 희망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보내시거나 362-4500
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됨.

김 목 공 소



● 신축 ● 증축 ● 수리 ● 실내장식

- 크고 적은 일을 막론하고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웁고
- 거리제한 없이 무료로 견적하오며 ※ 최신형 공구 및 장비
- 언제라도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드립니다

771-8019 소문난 김 대 진 목수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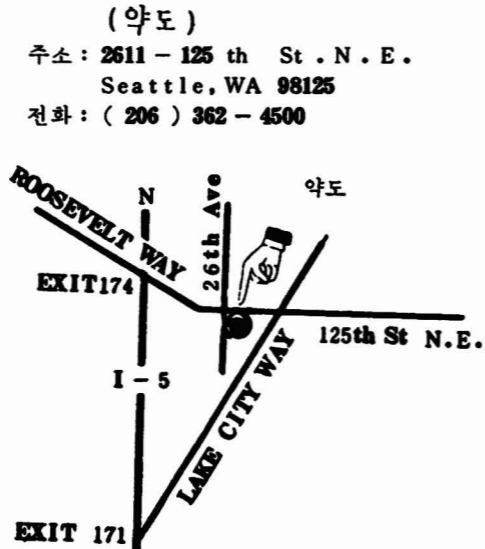
『알리는 말씀』

8.15 경축 기념행사

한인회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경축 기념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고포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이날을 경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3년 8월 15일 (일요일)
시간 : 오후 7:00
장소 : **한인회 광장 Pinehurst Elementary School**
2611 125th St. N.E.
Seattle, Wa 98125
TEL - 362-4500

프로그램 : 기념식
: 간단한 다과회
: 극영화 상영



『한인회공고』

1983년도
『시 페어 퍼레이드 시가행진』
(Sea - Fair Parade 8월5일)
에 참여제회

한인회에서는 1983년도 시애틀시 시 페어 퍼레이드에
참가 하기로 하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두차례에
걸쳐 준비 모임을 가지고 논의하여 왔으며 일단 일차적
인 계획을 작성하여 이 계획을 시 당국에 신청하고 인가
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참가 팀은 꽃차를 만들고 여왕을 선정하여
행진에 참가하는데 한인회는 한정된 비용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시애틀이 많이
드는 꽃차의 참여는 피하고 되도록 많은 고포들이 우리
전통문화 고유의 의상이나 특기로서 이에 참여하여 한국
의 아름답고 씩씩한 면을 보일수 있는 구상을 하였다.
(1) 농악팀 (2) 고전외상을 입은 여학생 고전 무용팀
(3) 남학생 태권도 팀을 참석케 하며 대형 태극기의 행
진 전시도 포함되게 하였다.

농악팀은 잔고, 팽과리, 퍼리, 등악기를 사용하여 한
국의 농악을 연주하면서 행진하고 그뒤에 고전외상에 어
학생팀이 한국의 고전음악에 맞추어 고전무용을 보이고
그중간에 대형 태극기를 전시하며 이어서 태권도 팀이
정식도복차림으로 태권도를 시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30일 한인회에서 열린 임원 이사 공동회 및
Sea Fair Parade준비 위원회 공동회의 에서는 각 팀의
책임자와 지도 담당자를 선정하고 시 당국의 인가를 받
는 데로 계획 수행에 곧 임할수 있게 하였다. 농악팀
의 지도는 인회 Tradewell 여사와 조경희 여사가 담당
하며 이를 돕는 한인회 책임자는 허 권홍보부장, 여
학생 고전무용팀의 지도는 인회 Tradewell 여사와 조 경희
여사가 담당하며 한인회측 책임자는 백 경숙 교육부장,
태권도 팀의 지도는 윤 학덕 사범, 이 경언 사범이 담
당하고 한인회측 책임자는 이 신남 체육부장이 각각 맡
기도 하였다.

이 Sea fair parade는 한국의 이미지를 이 미국 사회
에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로서 한인회는 고포들의 견의
와 성원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 고포중에 좋은
구상이나 견의가 있는 경우 한인회 사무실에 직접 연락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인회 전화번호 : 362 - 4500)

"시 페어 퍼레이드 시가행진 (Sea-Fair Parade)" 준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인회 이사 및 임원
단 전원 : 강 동 언, 김 동 호, 김 현 길, 박 진 문
백 경 숙, 심 상 현, 안 병 영, 오 경 아, 윤 학 덕
이 현 기, 임 광 희, 황 수 철.

『시 페어 퍼레이드에
참여할 농악기
연주자 구함』

"시 페어 퍼레이드 시가 행진(Sea fair parade)" 에
서 농악기를 연주할수 있는 고포를 구하고 있어오니 다
음의 악기를 연주할수 있는 분으로서 시 페어 퍼레이드
에 참여할수 있는 분은 한인회에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혹 그러한 분을 아시는 분을 소개하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번호 : 362 - 4500

악기 : 징, 날라리, 퍼리, 장구, 빙가리

(악기는 준비됨)

『교포사회 동정』

식품업자들의 회의 :
법적지식에 더관심을 가지며
교포사회에
더 좋은 서비스 다짐 .

그간 시애틀지역 식품업소 공동 경품권 추첨에 문제를
이르렀던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후 식품업소 업자
들과 한인회의 성실한 노력과 해명은 주무당국으로 하여
금 경고 처분이라는 조치로 일단 끝나게 하였다.

식품업소 업자들은 이번 불상사가 업자들측의 경품권
추첨판매에 대한 법적지식의 부족에서 연유된것을 인식
하고 이 기회를 자각과 발전의 기회로 할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한인회 사무실에 모여
앞으로 법적 사항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관계법을 익을수 있도록 현행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회
원 업자들에게 배부하는등 앞으로도 식품업자들이 이
지역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할수있는 방법등을 토
의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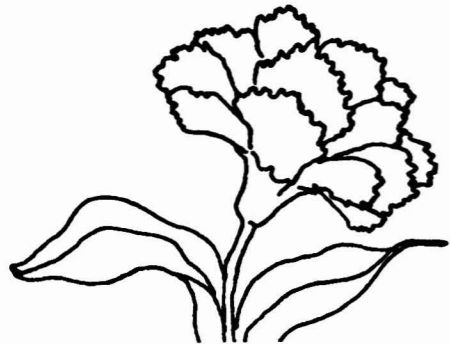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富林印刷

(206) 433-8811

꽃은마음의 傳達

병원 결혼식 개업 약혼 각종파티
장례식의 꽃등을 전화주문으로
원하시는곳에 보내드립니다.



스튜디오 꽃집
THE FLOWER STUDIO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B) 325 - 5032 (H) 367 - 1534

리스 서비스 센터

- 각종 가정용 및 사업용냉동기,
냉장고, 세탁기, 오븐 및 전
기용품 일질수리.
- 용접(전기, 산소)
- Wood Stove 제작및수리
- Maintenance Contract
24시간 서비스

Mark W. Lee
이용호

771-5728

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메트로폴리탄보험

안녕하십니까?

저희 메트로 폴리탄 보험회사는 120년의 오랜역사와 5천만명이 가입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로서

* 생명보험 개인퇴직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저축성교육보험
세금공제연금

* 건강보험 * 자동차 보험

* 가옥 보험 이러한것이 저희의 주된 취급업종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최고 100만불까지의 여러종류가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로 선택은 여러분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 사업보험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있는 전문보험인에게 의뢰하여 중간에서 성실하게 봉사할것입니다.

* 보장된 내일의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의 곁에서 『서비스』는 계속 될것입니다.

보험 대리인 안 창 영 드림



Metropolitan
Metropolitan really stands by you.
LIFE/HEALTH/AUTO/HOME/RETIREMENT

827-0347(사무실) 431-9192(집) 584-7121(타)
ROSE HILL OFFICE PARK 12636 N.E. 85th St. KIRKLAND, WA 98033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교포사회 동정』

문교부 주최 하계학교에
14명의 시애틀 교포학생 참가

해마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한국정부에서는 문교부 주관으로 재미 교포 2세들을 위해 편성하고 발전하는 한국의 참모습과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므로써 한국이 조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금년에는 7월 5일부터 18일(2주간)까지 중학생(7-9학년)은 사임당 교육원(강원도 영주군 주문진읍) 고교생(10-12학년)은 서울 교육원(서울 종로구 사직동 27-1)에서 실시하며 대학생은 7월 5일부터 11일(1주일)까지 충무교육원(경주시 배남동 산 56, 충남 아산군 엄치면 뱀남리 1418-459)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교과서 내용은 일반고과, 특별고과, 현장 학습등 세과로 나누어지며 일반고과에서는 국어, 국사, 민속문화, 조국의 모습, 한국 예절 등이며, 특별고과에서는 태권도, 민속무용, 우리음악, 의식 지도, 체육 등이고 현장학습에 들어가서 수학여행, 견학, 방문, 등으로서 우리 문화전통을 이해 할뿐 아니라 현대의 발전과 그리고 현지 자녀들과 사귀며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가지는등 다양한 내용이다.

시애틀 지역에서는 주제 운영사관에서 지원자 지원서 수리 및 선발을 진행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은 도합 십사명이다. 이 같은 십사명이라는 대 식구가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작년까지도 많아야 4-5명의 학생이 참가하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만큼 2세들에게 조국의 발전된 모습과 참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산교육을 시켜줄려는 교포들의 관심도 높아진 결과이고 아울러 한국 정부의 교육실시에 대한 보람도 높아질것이다.

금년 하계학교에 참가한 학생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학교이름	학년
이석준	U.W.	Junior
Charles Kim	Stanford U.	Fresh
조원식	Shorecrest High	12th
이시연	Shore eline High	12th
김광수	Shoreline High	12th
오정현	Moutain Tahoma High	11th
엄진	Kentridge High	11th
임진호	Sunset High (Oregon)	11th
김혁선	Spanaway High	11th
Shauon Kim	Junnitor High	10th
곽도은	Shorewood High	10th
권태시	Jane Adams High	10th
오대현	Belliamine Preperatory	9th
김광훈	Shoreline High	9th

시애틀~벤쿠버 친선경기대회

1971년도 부터 매년 갖어오던 시애틀~벤쿠버 친선 경기대회는 금년에 시애틀 측의 Host로 8월 27일(토)오전 9시부터 시내우드랜드파크에서 개최되며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평등 자문위원 모국초청방문

시애틀 지역 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은 모국정부의 초청을 받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간 모국을 방문하였다. 그때 방문한 평화통일 자문위원은 강동언, 김병섭, 김현길, 신호범, Mrs. Armstrong, 엄도순, 이순모, 이현기, 황수철 제위원들이다. (가나다순)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광고비 안내 (Advertising Rate)

본한인회보에 게재되는 광고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면표지 1/2면 (1/2 Page)	\$ 120
앞뒤표지 안쪽 전면	\$ 180
앞뒤표지 안쪽 1/2면	\$ 90
내부 전면	\$ 120
내부 1/2면	\$ 60
내부 1/4면	\$ 40

※ 분류광고(업종, 단체별 또는구인 구직)

(Classified)

1단(약 1" x 2 1/2") \$ 10

(표지나 내부에 광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달에 한해서는 분류광고는 무료로 하여 드립니다.)

ACE AUTO BODY

USED CAR SALE.BUY & TRADE



- ※ 무료 TOWING
- ※ 국내차 외제차 책임수리
- ※ 각종 중고차 사고 팝니다.
- ※ 보험 수리 전문
- ※ 20여년의 경험
- ※ 최신 FRAME MACHINE
- ※ COMPLETE PAINT WORK

- * AUTO SOUND SYSTEM INSULATION
- * CUSTOM BODY & PAINT
- * AUTO GLASS REPLA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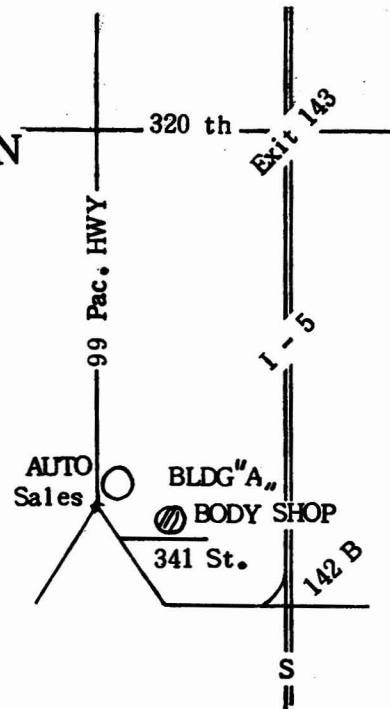
※ FREE ESTMATE (무료견적)

보험수리 상담환영

B: 838-1310
R: 839-7346

송 풍 언

1626 341st. PL. So.
Spectrum Bussines Park #A
Federal way WA. 98003



『교포사회 동정』

시애틀 지역 기독교회
연합회 총회
회장에 김 종 원 목사

축우회 주최
한인회장배 쟁탈
제 1 회
교민친선 장년 축구대회 개최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시애틀 지역 기독교 연합회 총회가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에서 각 교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 되었다.

지난 일년 동안의 연합회 활동보고가 있은후 앞으로의 계획으로 (1)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 (2) 유사 기독교에 대한 대책, (3) 가난한 교포돕기 운동을 강조하는 내년도 활동계획을 세웠다.

금년부터 평신도 분과: 의원회를 추가로 설립하여 평신도 연합회와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도록 하였으며 이날 임원 개선에 들어가 회장에 김 종원목사 (연합 감리교회) 부회장에 정 연발 목사 (중앙 장로교회) 이 영호 장로 (한인장로교회) 이외에 다섯 임원과 팔계분과 위원장 그리고 두 감사를 각각 선출 하였다.

이날 확인된 시애틀 지역 한인 기독교회들은 24개 있었다.

역시주 시애틀 축우회 (회장: 은 재철)에서는 30세 이상의 교포 장년들의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해 제 1회 한인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포장년들이 일거리 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갖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회에선 승부보다는 경기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참가선수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공고 사항 참조바람)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NORTHWEST ORIENT

미국입국환영

(美領의 移民入國法)

1981년 개정판

미국 이민법에 관한 일반안내

1982 Revised Edi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1982 Revised Edi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1982 Revised Edi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1982 Revised Edi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1982 Revised Edi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1982 Revised Edi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1982 Revised Edi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NEW PUBLICATIONS NOW AVAILABLE

New Book on U.S. Immigration Laws
In Korean Language
Prepared by Dan P. Danilov, Esquire
Translated by Mr. Kun H. Park
Published In Korea
by Northwest Orient Airlines
대니로브저 박건홍 번역

*『미국 입국 환영』
(미국의 이민 입국법)
*『미국 이민법에 관한 일반안내』

* 무료배부

Also Available:

“General Information About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s”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y Dan P. Danilov, B.A., J.D.

Available FREE From LAW OFFICES OF DAN P. DANILOV

3108 Rainier Bank Tower - Seattle, Washington 98101 Tel: (206) 624-1580

『교포사회 동정』

정매인씨 독창회
대성황 이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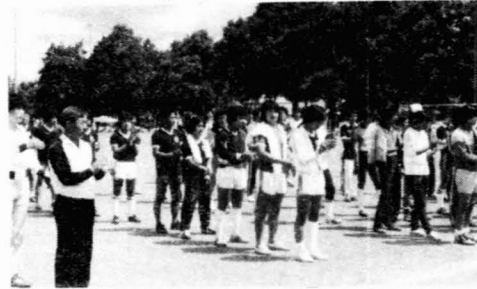
지난 6월 11일(토) 오후 8시부터 Seattle Center Play - House에서는 이화여대 및 대학원 성악가 출신의 교포성악가 정매인씨의 독창회가 900여명의 교포 및 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시애틀 중심가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교포 성악가의 독창회가 열리게 된 것은 정매인씨 개인은 물론 우리 교포 모두의 자랑스러운 성원을 받았다. 이날 주옥같은 곡들은 깊은 영혼을 일깨워 주는 감동으로 장내를 휩쓸었고 피아니스트 이혜연씨의 훌륭한 반주와 Flute의 안네 헤드스트롬(Anne Hedstrom)씨가 돋보였다. 정매인씨는 현재 워싱턴 한인 루터교회 전도사 및 지휘자도 있으며, 이곳 음악인 동우회의 회원이다.

조기 축구회 주최
제 2회 교민단합 축구대회 개최

지난 6월 11일 토요일 Woodland Park 축구장에서는 조기 축구회(회장 김길량)주최로 제 2회 교민 단합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김길량 회장의 계획사에 이어 신호범 시애틀 한인회장의 축사와 김상구 목사님 축도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이날 시애틀-아코마 지역에서 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경기와 응원으로 대회를 빛내었는데 결승시합에서는 시애틀 한인장로교회팀이 아코마 형제교회팀을 연장된 끝에 2대 1로 누르고 대망의 우승사매를 차지하였다.

- 시상 및 참가팀은 다음과 같다.
- 1등 :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팀
 - 2등 : 아코마 형제교회팀
 - 3등 : 시애틀 한인 형제교회팀



린우드 B·B·Q 센터
 불갈비, 냉면(한식일체)

영영업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0시
 카테일라운지 : 오전 11시 ~ 새벽 2시
 (7 DAYS A WEEK)

★각종 파티, 연회석완비, 넓은파킹장준비

ORIENTAL B·B·Q CENTER
 3828 196th St. SW.
 Lynnwood, Wa. 98036 ☎771-3700

K.P. 번역원
 <연방법원·이민국 인가>

●서류·책자 고급번역/작성 ●법정·이민국·각기관통역
 ●사건 조사·처리 ●유능한 전문번역사 선정
 ●이민·법률문제 해결보조 ●각종 상담

K.P. Translation Services
 1600 N.E. 47th St. #18 대표 : 박건홍
 Seattle, WA 98105 (206) 527-8094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교포사회 광고』

시애틀 지역 기독교 연합회
8·15 경축 체육대회
계획 발표

기독교 연합회의 금년도 회장이 된 김종원 목사(연합감리교회 시무)는 6월 14일(화요일) 첫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6월 11일 총회에서 채택된 금년도 행사 목적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하며 특히 연합선교동교회간의 연합활동을 통하여 교회간의 친교를 돈독히 하며 교포사회에 대한 봉사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으로서는 8월 15일 해방기념일을 계기로 8·15 경축 체육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 시일 : 1983년 8월 13일(토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시내 링컨 파크
 경기 종목 : 배구, 육상, 소프트볼, 줄다리기

이 대회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가나안 여행사
 친절과 신용분위

- 국제 및 국내 항공권 판매
- 각종여행 수속
- 항공권 월부판매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서류
- 교포여권 갱신업무
- 각종서류 번역
- 각종공증 업무
- 항공권 배달

409 Maynard Ave. So., Suite 107
 Seattle, WA 98104
 (한일각앞)
 (206) 624-6461

『알리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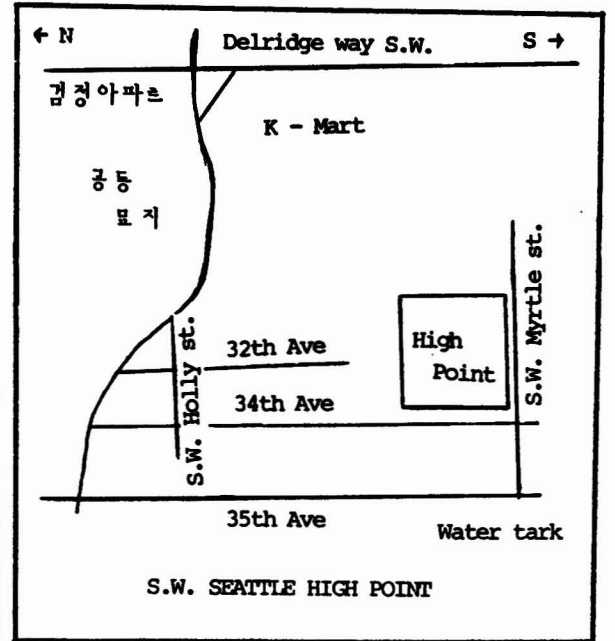
교민친선
장년 축구대회 개최

본 축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축구회 주최 한인회장배 정할 제 1회 장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1983년 7월 23일(토) 오전 9시
 장소 : HIGH POINT PLAY FIELD
 (34th SW & S.W. Myrtle)
 자격 : 1954년(30세 이상) 이전출생인 교민
 참가비 : 없음
 상 : 입상 트로피 및 참가선수 기념품
 참가신청 : 전화 - 762-1793 김춘동
 전화 - 938-4174 이승우
 신청마감 : 1983년 7월 16일(토) 오후 4시
 대표자회의 : 1983년 7월 16일(토) 오후 7시
 장 소 : 한인회 사무실

워싱턴 주 시애틀 축구회
회 장 은 재 권



『한인회 소식』

이사 임원 공동회의 및 제 8차 임원회의

한인회는 5월 21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긴급운영방침 세 부 계획을 위한 이사 임원 공동회의 및 제 8차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장시간 호의 하였다. 이날 박 태호 재무부장은 5월까지의 대략적인 재무현황보고를 하고 앞으로의 재정확보를 위한 수입의 긴급함을 지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대처할것을 요구하였다. 회보의 광고비 징수를 효율있게 하며 일반 회비를 징수하는 두가지 방법을 세밀히 계획하고 강력히 추진할것을 재촉하였다.

회보의 광고비 징수를 효율있게 하기 위하여 회보의 발행 회수를 매달 한번씩하는 원칙을 제 강조하고 홍보부장인 허 권씨가 광고주를 직접연락 광고비를 징수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책임을 맡게되었다. 일반 회비징수를 효율있게 하기 위하여는 매월 회보에 회비징수 봉투를 삽입하여 일반 교포의 관심을 환기시킴 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있을 한인회 행사의 주무담당을 다음 각 같이 각각 선정결의 하였다.

1. 6월 24일, 25일, 26일에 있을 Ethnic Group Festival 은 부녀부장인 Mrs. 한이 담당하여 시간표, 인원동원 프로그램등을 계획하게 하였다.
2. 6월 11일 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주 무담당은 오 계획 부회장이 맡기로 하였다.
3. 8월 5일의 계획인 Sea - fair Parade는 곽 총세부회 장, 김 영남 봉사부장이 담당 키로 하였다.
4. 8월 13일의 시애틀-밴쿠버 피크닉은 이 신남 체육부 장이 담당토록함.
5. 8.15 광복절 경축 행사는 조 성욱 총무부장이 맡기 로 함.
6. 이날 경노회, 총회, 아리랑의 밤 준비에 대하여도 간단한 호의가 있었으며 총회는 조 성욱 총무부장, 아리랑의 밤은 이 현진 섭외부장, 박 태호 재무부 장 이 각각 맡기로 하였다.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보혜사 한방원

保惠師 漢方院

●보약 ●녹용 ●우황청심환 ●첩약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됩니다.

전화예약 바랍니다.

-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 대한침구사 협회장 표창장 수령
-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보혜사 한방원 최 창 하
762-8566 762-6493

762-8566 762-6493




공관과단체 지사

씨애틀 · 워싱턴주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206) 362-4500	씨애틀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1125 UA BLDG. - 6TH AVE. (206) 682-0132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WASHINGTON STATE 584 INDUSTRY DRIVE, SEATTLE WA 98188 P.O. BOX 58611, SEATTLE, WA 98188 (206) 575-1320	대한무역진흥공사 씨애틀무역관 900 - 4TH AVE. #1245 SEATTLE, WA 98104 (206) 623-3588 / 9
워싱턴주한인기술사협회 KOREAN TECHNICAL ASSOCIATION 2611 - 125TH ST. N.E. SEATTLE, WA 98125 RES: (206) 937-5291	한국외환은행씨애틀지점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 98101 (206) 622-8721
한국일보씨애틀지사 THE HANKOOK ILBO 7320 -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5-9222	중앙일보씨애틀지사 THE JEONG ANG DAILY NEWS 2684 S.W. 333RD PLACE FEDERAL WAY, WA (8003) FEDERAL WAY, WA 98003 (206) 838-3155 • 927-5915
동아일보씨애틀지사 THE DONG H IL BO (206) 524 ~ 5999	(주) 호성물산 (Unipac International, Inc.) HYOSUNG AMERICA CORPORATION SEA-TAC OFFICE CENTER TOWER 1, SUITE 412 18000 PACIFIC HIGHWAY SOUTH SEATTLE, WA 98188 (206) 244-2804
현대상사 (주) HYUNDAI CORPORATION FOURTH & BLANCHARD BLDG. #270 2101 - FOURTH AVENUE SEATTLE, WA 98121 (206) 682-1698 / 9	(주) 삼미사 SAIMISA AMERICA CORPORATION 1111 THIRD AVENUE BUILDING SEATTLE, WA 98101 (206) 623-4426
신흥목재 (주) SHIN HUNG LUMBER COMPANY, LTD. 5272 PRAKNESS WEST LINN, OREGON 97068 (503) 655-7652	(주) 쌍용 SSANGYONG CORPORATION FOURTH & BLANCHARD BUILDING SUITE 1470 2101 - FOURTH AVENUE SEATTLE, WA 98121 (206) 623-4307
대한선주주식회사 KOREA SHIPPING AMERICA 2121 - FOURTH AVENUE SUITE #1520 SEATTLE, WA 98121 (206) 625-1960	(주) 한진해운 HANJIN CONTAINER LINES, LTD. KOREAN FLAG SERVICE 157 YESLER WAY SEATTLE, WA 98104 (206) 447-9422




종교

씨애틀 한인천주교회 담임신부 : Richard Parle 3939 13th Ave. South Federal Way, WA 98003 (206) 838-5924	임마누엘 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찬우 22905 63rd St. W. Mtkterr, WA 98043 (206) 776-5749
워싱턴 한인루터교회 담임목사 : 박기영 WASHINGTON KOREAN LUTHERAN CHURCH 740 SOUTH 128TH STREET SEATTLE, WA 98168 (206) 243-8555, 242-6600 (CHURCH OFF.), 242-6607	씨애틀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하경 KOREAN BAPTIST CHURCH 1306 N 165TH ST. SEATTLE, WA 98133 (206) 542-4391
한인 제일 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창수 425 N.E. 95TH SEATTLE, WA 98115 (206) 367-2178	씨애틀 성은교회 담임목사 : 성윤경 4401 2ND AVE. N.E. SEATTLE, WA 98105 524-9210
한국 뱃엘 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영규 BOTHE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358 3RD AVE. N.W. SEATTLE, WA 98177	씨애틀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목 11508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206) 365-5333, 364-5394
씨애틀 한인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종원 1415 N.E. 43RD ST. SEATTLE, WA (206) 226-7864, 632-5163	웨더럴 웨이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권 1829 S. 308TH ST. FEDERAL WAY, WA (206) 941-9684, 839-6744
렌튼 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경원 3031 N.E. 10TH ST. RENTON, WA (206) 226-2703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영희 1315 N. 160TH ST. SEATTLE, WA 367-5858, 774-1885
씨애틀 한인형제교회 담임목사 : 최웅걸 7TH & SPRING 365-6691, 367-0183	에베렛 한인 베다니 교회 담임목사 : 최창호 2626 CEDAR EVERETT, WA 98201 (206) 355 - 6377
성복음 성결교회 담임목사 : 윤한두 14537 - 3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367-1490	한인 복음교회 담임목사 : 이영준 811 5TH & COLUMBIA ST. SEATTLE, WA 98101 (206)363-6789

씨애틀 중앙 장로교회 담임목사 : 정연발 9421 18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3-8952	한인 선교교회 담임목사 : 송천호 515 South 312 Street Federal Way, WA. 98003 838-4599-922-1611
씨애틀 한인 안식일교회 담임목사 : 유재상 300 W. SAAR ST. KENT, WA 854-1125, 8490	순복음 씨애틀교회 담임목사 : 박성수 1632 BROADWAY AVE. P.O. BOX 20305 (206) 546-1612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구 2728 N.E. 100THST. SEATTLE, WA 98125 367-4561, 523-2728	에베렛 한인교회 담임목사 : 고필균 EVERETT OF KOREAN CHURCH 1ST CASINO RD. EVERETT, WA 98204 (206) 353-4143
씨애틀 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최태원 1215 THOMAS ST. SEATTLE, WA 98109 (206) 242-0315	서부 영생교회 담임목사 : 한상국 9252 - 16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0693
서부 씨애틀 한인교회 담임목사 : 이명택 CHURCH 3025 AVALON WAY S.W. SEATTLE, WA 98126 (206) 932-2553	워싱턴 선교 중앙교회 담임목사 : 박 다니엘 8208-18th Ave. N.E. Seattle 776-1850
양복점 · 양장점 	
장씨양복점 및 세탁 20005 HWY. 99 LYNNWOOD, WA (206) 775-3222	박 글라라 의상실 절개식 특수재단 · 개인지도합 939 N - 182nd St. SEATTLE, WA 98133 (206) 542-7855, 775-8923
NEW MODE TAILOR SHOP 9828 16TH AVE. S.W. SEATTLE, WA 98106 Mr. & Mrs. CHUNG (206)763-8333	핑키 양장점 PINKY DRESS MAKING 9741 HOLMAN RD. N.W. SEATTLE, WA 98117 (206) 874-1624
A - ONE 양복점 10307 Bridgeport Way S.W. Tacoma, WA (206) 581 - 4451	




식품점

그랜드식품 8512 - 20TH N.E. SEATTLE, WA 98115 (206) 525-8334	아로라식품 1630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2-9489 • 6577
아줌마식품 3126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 941-1123	오대양식품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206) 363-6850 • 365-9844
장미상회 1414 SO. 324TH ST. FEDERAL WAY, WA 98003 (206) 941-8144	제일식품 21405 HWY 99 #A LYNNWOOD, WA 98036 (206) 774-4103
중앙식품 9641 - 15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2-5620	켄트상회 23633 - 104TH AVE. S.E. KENT, WA 98031 (206) 852-8388
한국식품 514 - 6TH AVE. S. SEATTLE, WA 98104 (206) 682-2992	현대식품 10402 - 16TH AVE. S.W. SEATTLE, WA 98146 (206) 762-4792
 선물 옷집 테레비	킹 테레비·비디오 504 S. KING ST. SEATTLE, WA 98104 (206) 624-9844 624-9815, 747-7234
오로라선물센터 14107 AURORA AVE. (206) 362-8617, 454-2087	아폴로 테레비 비디오 916 N. 160th St. Seattle (Sears 맞은편) 546-4222(시애틀) 531-6370(타코마)
청바지센터 JEANS GALORE 525-3145 ■ 유명패션 Jean, 각종 작업복 및 고급유명품 ■ 귀국선물용, 품질보장, 최저가격보장 ■ 성인, 어린이용 다량취급. 6410 Roosevelt way NE	신신 선물센터 8518 SO. TACOMA WAY (206) 582-2975 시애틀 622-8552



사진인쇄

뉴모드 인쇄소 6433 SO. TACOMA WAY TACOMA, WA (206) 475-74299	부림인쇄 BRIM PRESS 450 S.W. 153RD SEATTLE, WA 98199 (206) 433-8811
쇼어라인 그래픽스 3008 N.E. 127TH ST. LAKE CITY WAY, WA (206) 364-6632	익스프레스 카피·프린트 EXPRESS COPY & PRINT 8415 GREENWOOD AVE. N. SEATTLE, WA (206) 789-7272
탑 프린트 5907 - 196th S. W. LYNN WOOD, WA 98036 (206) 775-7667	하바하바 사진관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206) 475-6226
 보험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강성국종합보험 EQUITABLE INSURANCE (206) 588-3112 (TAC) (206) 624-8380 (SEA)	안창영종합보험 메트로 폴리탄 종합보험 사무실 : 827 ~ 0347 집 : 431 ~ 9192
김철준보험 NEW YORK LIFE SEA: 546-6586 TAC: 588-0333 RES: 367-1534	박법신종합보험 METROPOLITAN INSURANCE (206) 455-0650 (SEA) (206) 367-2144 (RES) (206) 588-0333 (TAC)
이형석종합보험 PRUDENTIAL INSURANCE (206) 226-6151 (RES) (206) 285-3151 (BUS)	최영세보험 EQUITABLE INSURANCE (206) 624-8380 (SEA) (206) 475-5353(TAC) RES: 745-6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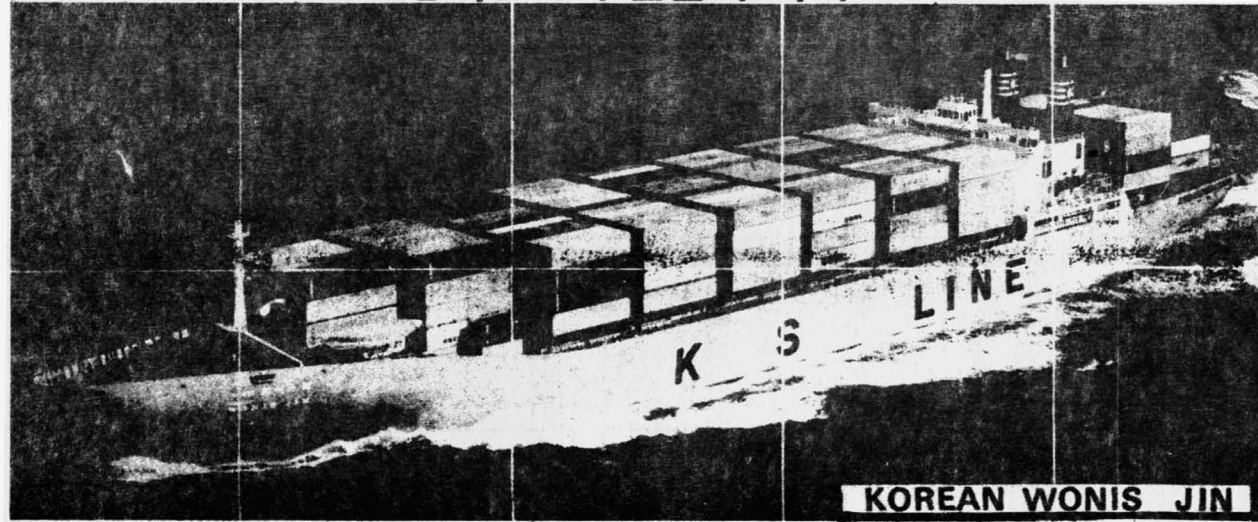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한국해운의 기수

K.S. LINE

미주항로 최대의 18척 운항개시

정확한 1주일간격 서비스



32년 역사를 가진 국적선사 K. S. LINE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 5월부터 기존 극동·미동해안 항로를 11척 선대로 대폭증가하고 극동·미 서해안 전역을 6일 간격으로 서비스하는 서해안 특별 서비스를 개설하여 총 18척의 태평양항로 최대의 선대로 하주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전의 협조를 배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및 미서해안 특급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 컨테이너선 7척
- 항 차 간격 : 6일
- 부산·시애틀항해일수 : 1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서해안전역·중서부및 GULF 지역

극동및 미동해안 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컨테이너선 11척
- 항 차 간격 : 7일
- 부산·뉴욕항해일수 : 2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동해안및 EAST CANADA 전역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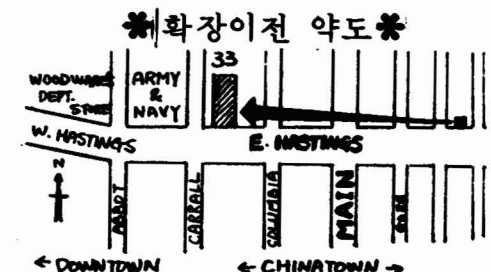
2121 4th Ave. #1520 SEATTLE, WA 98121

(206) 625 1960

*인삼, 녹용, 즉석분말
 *각종한약조제
 *각종비타민
 *고급귀국선물
 *한국어로 무료진맥

*타주또는 지방에 제신분 전화상담 환영
 ●Open 7 days/wk

진영찬 한의사
 한국태생 중국인 2세
 서울화교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졸업
 한약방 30년 경력
 현 B.C. 침구협회심사위원
 현 밴쿠버 초약사 협회회장



Canada Ginseng Company, Ltd.
 33 E. HASTINGS ST. VAN. B.C., CANADA. V6A 1M9

☎ (604) 681-9888 255-7033 (B) 922-4577 (R)

진한약방 확장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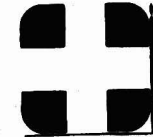
여행사

김 여행사 KIM'S TRAVEL SERVICE #619 LLOYD BLDG. 603 STEWART ST. SEATTLE, WA 98101 (206) 642-2227 / 8	가나안 여행사 CANAAN TRAVEL SERVICE #107 -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 624-6461
대한여행사 KOREA TOURIST BUREAU DANA PLAZA SUITE #5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TACOMA (206) 952-5595 SEATTLE (206) 941-8866	장 여행사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206) 523-7057
동서여행사 EAST 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635 SEATTLE, WA 98101 (206) 623-2157 / 8 367-1935	킹 여행사 KING TRAVEL AGENCY 504 S. KING ST. SEATTLE, WA 98104 (206) 624-9844
태평양여행사 PACIFIC TRAVEL SERVICE 5649 - 17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7390	타코마 한국여행사 11222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206) 588-0333 / 7788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2636 2ND AVE. SEATTLE, WA 98121 (206) 623-9290	오로라 여행사 AURORA TRAVEL 14109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367-5300
꽃집 서점 피아노	스튜디오 꽃집 4333 E. MADISON SEATTLE, WA 98112 (206) 325-5032, 367-1534
장미 꽃집 PACIFIC ROSEHOUSE 11812 PACIFIC AVE. TACOMA, WA (206) 531-8408	YANG'S 묘목및 씨앗 Nursery & Landscaping Gig Harbor 857-4073
세계 피아노사 YAMAHA 776-9610 365-5540	한국서적 11101 PACIFIC HWY S.W. TACOMA, WA (206) 584-8292



부동산

김수잔 부동산 BRETON'S PROPERTIES, INC. 6100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15 BUS: 524-3900 RES: 392-8535	김종구 부동산 WEST COAST HOMES 367-0655, 362-8370
김현중 부동산 1809 - 214th S.W. LYNN WOOD, WA 98036 774-7828, 774-3839	김병관 CEHTURY 21 부동산 (BUS) 363-8509 (RES) 745-1367
노순열 부동산 622-6385 546-1648 542-7977	노명건 부동산 VR BUSINESS BROKERS (206) 774-5200 1-568-5551, 1-337-2480
동서 부동산 EAST-WEST BROKERS 8624 PACIFIC AVE. #12 TACOMA, WA 98444 (206) 537-3214	CEHTURY 부동산 23421 MILITARY Rd So. KENT, WA 98031 878-1840 · 838-4263
신창호 부동산 367-1757 778-1186	신운하 · 김이순 부동산 365-6535 363-8500
이양남 부동산 (BUS) 246-8033 (RES) 246-5386	오확실 부동산 455-9571, 344-8370
장국경 부동산 WASHINGTON REALTY (206) 244-9114 (206) 838-3324	채태용 부동산 BROKER 588-4243, 582-5990 584-2700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富林印刷 (206) 433-8811



병원 한방

엄도승 산부인과 KENT MEDICAL CENTER INC., P.S. 222 N. STATE KENT, WA (206) 872-3400, 631-5863	로명재 산부인과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2065) 833-2580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 (2065) 927-8440
이창준 산부인과 10109 PLAZA DR. S.W. TACOMA, WA 98499 (206) 584-4355 / 4357	오덕주 산부인과 23RD AVE. S.W. & MERIDIAN SO. PUYALLUP, WA 98371 (206) 848-4453 1624 SO. "I" ST. TACOMA, WA 98405 (206) 627-0609
박창식 내과 801 BROADWAY #912 HEATH PROT BLDG. (206) 624-5867, 827-4014	이영주 치과 10209 BRIDGEPORT WAY W.S. TACOMA, WA 98499 (206) 581-1412 STEVENS DENTAL CENTER 20728 - 76TH AVE. W. EDMONDS, WA (206) 775-3456
조병규 치과 215 N. 125TH ST. SEATTLE, WA (206) 367-5570, 776-8512 1815 SO. 324TH PL. FEDERAL WAY, WA (206) 838-3180 (SEATTLE) (206) 927-4996 (TACOMA)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진 한방원 461 E. HASTINGS ST. VANCOUVER, B.C. CANADA V6A 1P5 (604) 255-7033	HOI W. LEE 치과 *FAMILY DENTISTRY* (Park Ave and N. 2nd St.) Vukov Medical.Dental Clinic (206)226-8151·226-4467
보혜사 한방원 8107 22nd Ave. S.W. Seattle, WA 98106 762-8566·762-6493	동양 한의원 16715 PARK AVE. S. SPANAWAY, WA (206) 537-9592
중국 한의원 605 SO. JACKSON ST. SEATTLE, WA 98104 (206) 628-0950	무림 한의원 1012 - 108 th Ave. N. E. Bellevue, WA 454 - 6308
제일 한방원 17421 30TH DR. S.E. BOTHELL, WA 98011 (206) 483-8136	박 약국 8512 - 20 th Ave. N. E. SEATTLE, WA 98115 (206)527- 3010



공사 및 전기수리

장 서비스 냉장, 냉동기, 전기보온, 가정전기제품출장수리 집철 및 지붕수리, 정원공사, 미장공사일체 29105 S. 35 Federalway 전화: 941 ~ 5488 • 839 ~ 4172	김스 종합건설 DAE J. KIM 3825 - 191ST S.W. LYNNWOOD, WA 98036 (206) 771-8019
SONG'S PAINTING 10554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525-7680, 546-1572	ALOHA PACIFIC PLUMBING 363-5383, 362-6368 ALOHA PP205QQ
PARK'S PAINTING & SIGN CO. 151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206) 762-5410 (206) 242-6801	리스 서비스 센타 MAINTERNACE CONTROCTOR (206)771 - 5728
권스 랜드스케이핑 콘크리트, 펜스 잔디심기, 돌쌓기, 공터매꾸기 및 불도져 작업 정원손질일체, 821-1960(집) 821-1178(bus)	원 건축 WON CONTRUCTION 신축 및 증축 (206)767 - 9372 (206)584 - 1938
  자동차 수리	101 바디샵 ALL INSURANCE WORK 10059 AURORA N. SEATTLE, WA (206) 525-5778
미드웨이 주유소·정비센타 23845 PACIFIC HIGH WAY SOUTH KENT, WA 98031 (206) 878-7500	시온 바디샵 ZION AUTO REBUILDER AUTO, BODY REPAIR & PAINT 5402 Delridge Way S.W. Seattle, Washington 98106 Bus. (206) 837-3113 Res. (206) 838-5541
LEE 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정비 센타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362-4449	김스 자동차 수리(종합정비) 8035-15th Ave. N. E. LAKE CITY WAY 524-6006 524-9686
ACE AUTO BODY THE EXPERTS IN CUSTOM BODY WORK WE SELL, BUY, & TRADE USED CARS BUS (206) 838-1310 RES (206) 874-2489	GREENLAKE AUTO ELECTRIC 6501 AURORA AVE. N. SEATTLE, WA (206) 782-4695

1626 341st PL. SO.
 SPECTRUM BUSINESS PARK A
 FEDERAL WAY, WA 98003

식당



영미정 YOUNG ME RESTAURANT
 (206) 623-3112
 KOREAN & JAPANESE CUSINE
 COCKTAIL LOUNGE (LIVE MUSIC)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220 - 4TH ST. S. SEATTLE, WA 98104

태화각
 3133 BROADWAY
 EVERETT, WA
 6312 BOTHELL WAY N.E.
 SEATTLE, WA
 (206) 485-4020 252-1663

경화반점 京華飯店
KING WHA RESTAURANT
 Lunch: Tue.-Fri. 11:30 am-2 pm
 Dinner: Tue.-Thur. & Sun. 4:30-9:30 pm
 Closed on Mondays Fri. & Sat. 4:30-11 pm
 605 S.W. 152nd (Burien) Phone 243-0323

귀빈원
 11101 PACIFIC HWY. S.W.
 (206) 588-9262

북경반점
GRAND PEKING
 1706 - A SO. 320TH
 FEDERAL WAY, WA
 (206) 839-1787 952-1787

왕궁식당
 7119 EMPIRE WAY SO.
 SEATTLE, WA
 (206) 723-1958

한국관
 212 4TH AVE. SO.
 SEATTLE, WA 98104
 (206) 622-1936

장미원
 8904 AURORA N.
 SEATTLE, WA
 (206) 525-1335

ORIENTAL BAR -B- Q CENTER
 3828 -196th S.W.
 LYNN WOOD, WA
 (206) 771-3700

한일각 HANI KOREAN RESTAURANT

 40 MAYNARD AVE. S.
 SEATTLE, WA 98104
 (1ST FL. BUSH HOTEL IN CHINA TOWN)
 (206) 587-0464 / 0465

공인회계 변호사

이규영 계리사
 2809 4TH AVE.
 SEATTLE, WA
 (206) 623-4181 / 3

김종구 회계사무소
 10351 37TH AVE. N.E.
 SEATTLE, WA
 362-8370, 367-0655

심상연 인컴 텍스
 10307 BRIDGEPORT WAY
 TACOMA, WA
 (206) 474-1802, 582-1644

이종순 인컴텍스
 2669 S. W. 355P1
 FEDERAL WAY
 (206) 939 -4784

로날드 브라운 2110 EXCHANGE BUILDING
 2ND and MARION
 SEATTLE, WA 98104
 OFF: 682-0565, RES: 821-4465.

『 STUDENTS SECTION 』

KOREAN - U.S. RELATIONS

By Donnie Kw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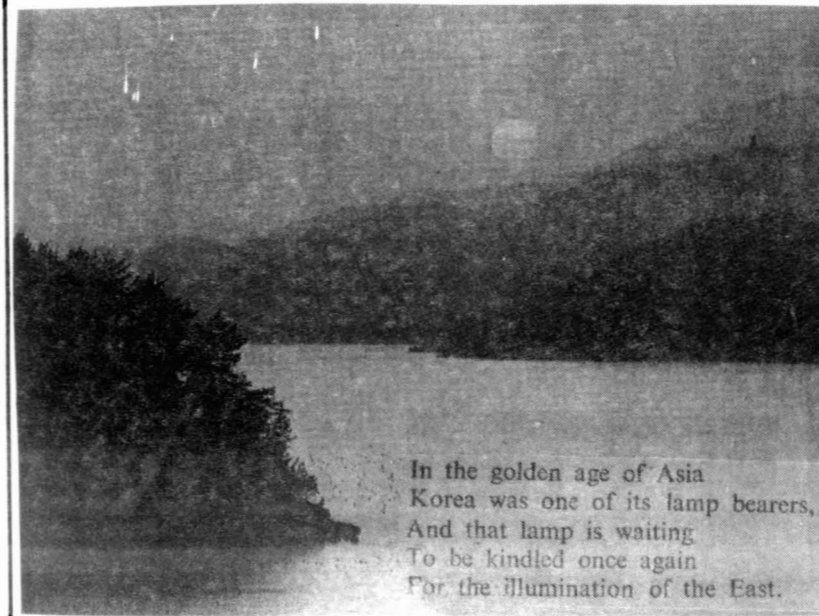


The beginning of Korean-U.S. relations started in June 24, 1866 when an American schooner "The Surprise," crashed off the Pyongan Pukdo Province on its way to china. The crew was relieved to find themselves accepted by the Korean people. However, this was not the beginning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wo months later another American schooner, the "General Sherman." came into the mouth of the Taedong River. Instead of being accepted, the ship was destroyed. Not because that the Koreans became hostile, but because the crew themselves arrogant.

Next came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which took place on May 23, 1882 in chemulpo, which is now called Inchon.

After this Treaty they merely existed as two countries on the same surface other than comrades until the Korean War, which started in June 25, 1950, and which brought them together.

The Korean War took 34,000 American soldiers, and 391, 853 other soldiers from eleven other countries, who fought to keep Korea a republic country. I'm sure if they could see the improvements in seoul with its modern sky scrapers and its bustling way of life, they'd be proud to know that they hadn't died in vain. The Korean people are thankful to those who have died in the war, to say the least, for they owe their freedom, and life to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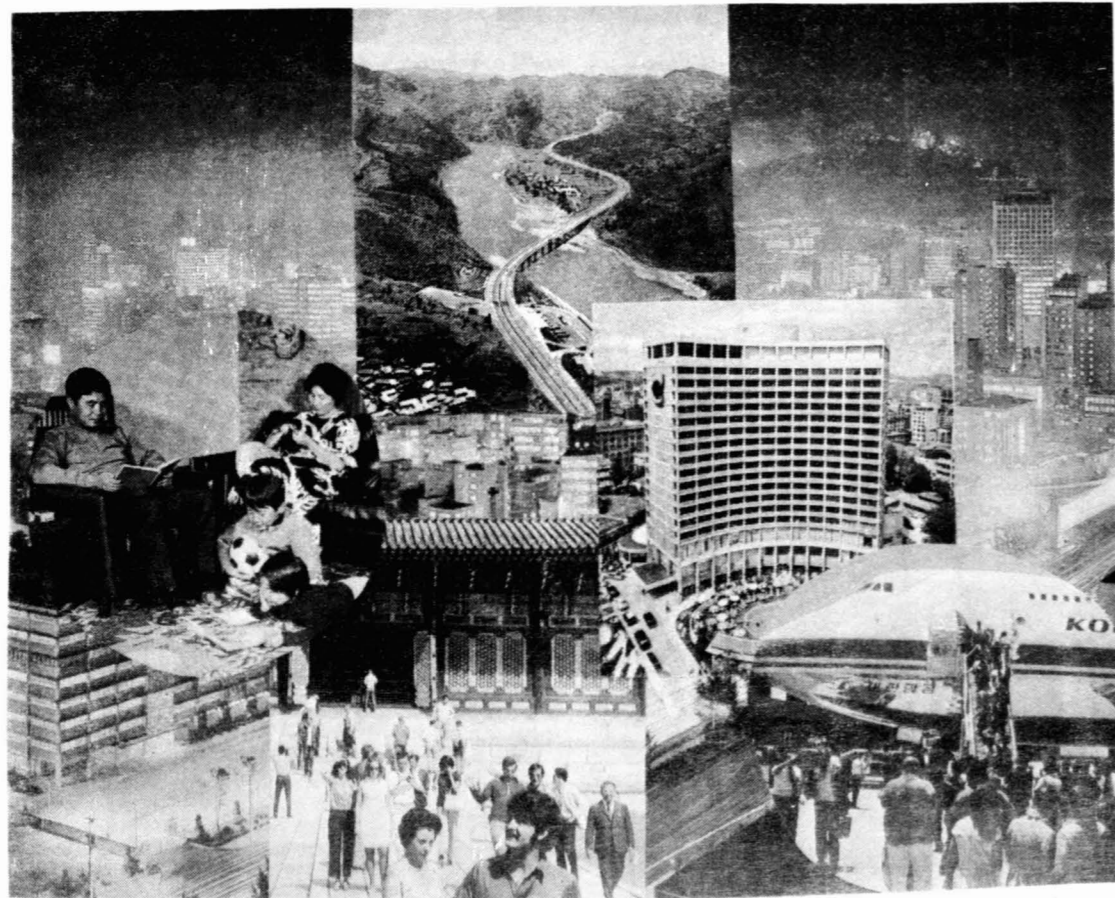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kindl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of the East.



A gilt-bronze seated Maitreya image is among the serene masterpieces of Korean Buddhist art. Made in the 6th-7th centuries, this statue has been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I recommend that if Korea does improve on its trade relations with the U.S., especially with maybe in the automobiles, it should build a factory in the U.S. to help the out-of-work (non) workers. Another suggestion to improve future relations is to advertize or show the Korean culture to American people who wants to know all about the Korea. And also for the 500,000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Americans who live in the U.S. at the moment and aren't really sure what they think about Korea need to be introduced of Korean culture so that they should understant that Korean's way of life is not unusual. And in the show, if there's going to be one, I think it should include the many sights in Korea. The sights would include tranquil, hazy Surak San, the sizzling beaches of the Pusan coast and even the tropic-like cheju Island . Of course, the typical every day life of a Korean family; to show it's not as unusual as many people believe.

We need to have the two countries maintain their friendship for many reasons. One reason is the trade relations. When trade helps both countries to grow, it is essential to Keep the level of communication open at all time. Korea exports everything from shoes to electronics and maybe even cars in the near future. Another reason to keep the friendship going is because of defense reasons. Since Korea, which is split up into communism and republic, has numerous problems with its relations with each other, it needs all the support it can get. Even though you never know when the Communists will attack, it's a good feeling to know that the U.S. is standing by you. A friend you can trust and vise versa.



There are 500,000 or even more Koreans living in the U.S. today with many more coming each day. Koreans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daily lives of people in the U.S. They have occupations that very from one person to another like all walks of life. Some of them are storekeepers while others are doctors and lawyers and business men. And of course they're all tex payers.

The first Koreans that came to the United States were the ninety-seven men, women, and children who came to Hawaii on Dec. 22, 1902 to work in the sugar plants. The reason they settle in Mokulela Village on Oahu Island was because Charles R. Bishop, the then president of the Hawaiiin Sugar Planter's Association, had visited Korea to recruit Asian workers. This started such a mass emigration to Hawaii, that they, the government, had to stop the immgration for a few years. There were 7,250 Koreans who came to the Hawain island in the past thre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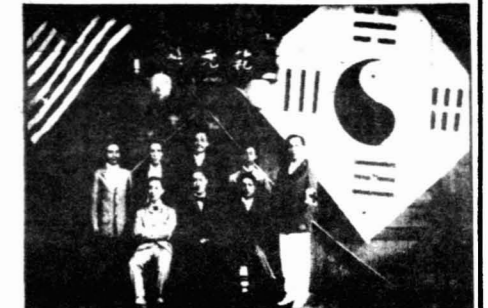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Korean laborers'collective immgrants, students patriots, women, and other people went to America to study, take refuge, to marry or for other purposes during the Japenese occupation in Korea.

The succesful and wealthy Koreans are noted in history to have helped their country tear itself apart from Japan's grasp.

The American government should know that it can count on Korea, Koreans, and the Korean-Americans who have adopted this country as thir own. If we maintain the relation high level as it is now, I think we will have nothing to fear.



The first Korean National Association building at 1303 Miller St, Honolulu (1909) where the Board of Health bldg is now. Courtesy of Mr. Young Ok Kang



Korean National Association 1909. Front Row (L to R): Sang Ha Park, Won Myung Ching (Pres.), Yong So Kang (Secretary). Second Row (L to R): Won Kyu Ahn (Treasurer), In Pyo Hong (Secretary), Nae Soo Lee (V. Pres.), Yong Hwan Seung (General Manager), unknown. Courtesy of Mrs. Chong Song A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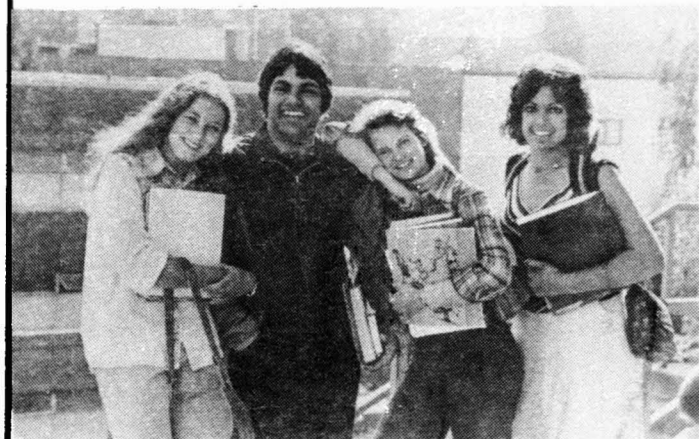
This paper was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social studies class requirement of 1980 by Donnie Kwak at Einstein Junior High School. Donnie was eighth grater when she compled This paper. It is printed here by her permission.

See America's Other Washington.
The State.™



...Study English at the Intensive English Language Institute (IELI)

Summer - or Year 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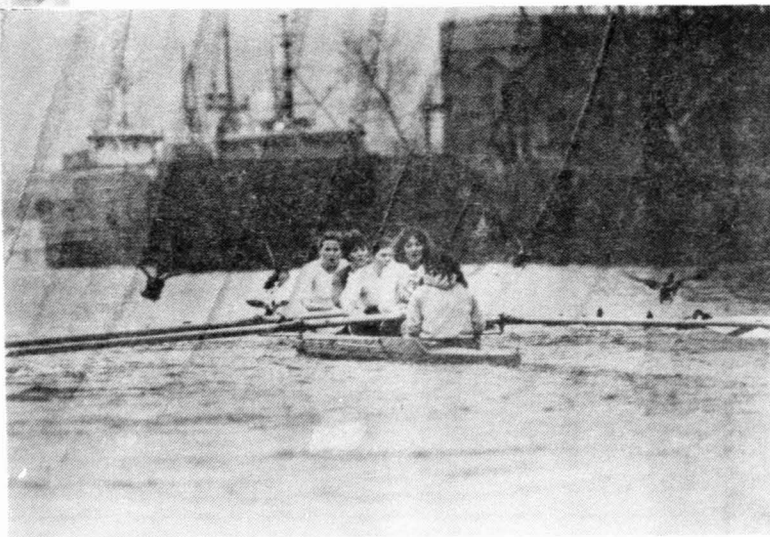
- Computerized instruction and Language Lab
- Small, personalized classes
- Direct transfer without TOEFL if qualified
- Conditional Letter of Acceptance
- American conversation partners
- Host family or dormitory stay
-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
- Field trips that explore American culture
- Sports activities and social events

IELI offers summer and academic year programs at

- Pacific Lutheran University - Tacoma
- Seattle Pacific University - Seattle
- Whitworth College - Spokane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write to:

American Cultural Exchange
1107 - N.E. 45th Suite 315A
Seattle, Washington 98105 U.S.A.
Phone: (206)633-3239
Cable: ACEXCHG Seattle
Telex: 329473 (Burgess Sea)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친애하는 한인상공인 여러분!

워싱턴주내에 있는 700여개의 한인사업체들은 이제 개별적인 노력에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확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본 상공회의소는 날로 커가는 워싱턴주내 한인들의 비지내스 활동을 증진시키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상담실운영, 단체건강보험교섭, 업종별 분과위원회구성, 사업정보 알선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한인상공인 재워께서는 각자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또한 이지역 교포사회의 경제적기반을 구축하는데 참여하여 일익을 담당한다는 뜻에서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본 상공회의소의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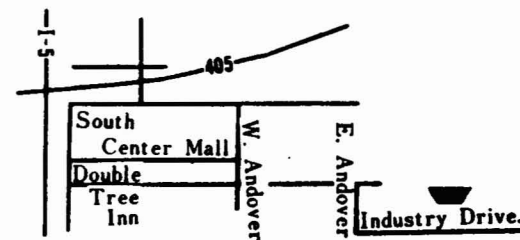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 현 주
이사장 노 순 열

◎ 상공 회의소의 회원이 되려면?

본 회의소 회칙 제6조에 따라 "워싱턴주내에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상공 업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경영 책임자"는 누구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 \$20을 첨부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3개월에 \$10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 상공회의소를 지원하고 본 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을 얻을수 있도록 모든 상공인들께서 다함께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원서는 본회의소 사무실에 요청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서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 주소 및 위치도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Washington State
584 Industry Drive
Seattle, WA 98188
Tel : (206)575-1320



美國 50個州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습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로고 빠른
한국일보

시애틀

525*9222

타코마

588*2500

“어느포스터의 환상”



조성욱

“당신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세종로에서 중앙청까지 가는 길목

건물 벽에 많이 붙어 있었던 포스터에 외악같이 쓰여 있는 글의 구절이 가끔 생각날적이 있다.

주름진 어느 노장 할아버님께서 머리에 걸끈 동어 댄 수건앞에 태극이 그려있었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정면을 향한 그 포스터의 할아버님의 두 눈동자에 무언가 메시지를 만큼 심중한 감동을 주는 포스터였다고 기억된다.

그 당시 그러한 포스터가 어떠한 의미에 서간간에 결코 커다란 감동을 나에게 주지에는 나의 나이가 너무 어렸었지만 삼사십년이 지난 이제 가끔 그 포스터의 영상에 무언가 자세한 경건함과 알지못할 침묵을 가끔 느낄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솔직히 얘기하여 육신과 영혼을 성장해오던 지난 날 27년 동안의 내 조국에서의 생활에선 한번도 그러한 포스터의 환상이란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평범 이전의 생활이 있었다.

그러한 그 포스터의 환상과 기억이 언제부터 나에게 거리를 가까이 하게 되었는데는 정확한 기억이 뚜렷치 않다. 하지만 불쑥 불쑥이 그의 기억이 노출될때가 언젠가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조국을 떠나 이민생활에서 종종 느끼지는 마음의 허탈한 약해감과,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며, 이 사회를 대하는 마음이 비굴해지고 저열에 지며, 그래서 음성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동등이며, 결혼하여 부모가 된 이후에는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알뜰히 바래지는 복잡한 기대감, 소망감 또한 이들과 거리를 두고 병행하는 갈등(때때로 이러한 심리적 전향에 조응한 자아 심판적 회의도 느끼지만), 비참등등, 바로 이럴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국이라는 데에 두가지 개념이 있다. 또한 이 개념은 내가 태어났던 내조국을 멀리하고 이곳미국에 와서 살고있는 현실적인 생활구조적 개념이라는 환상적인 조국이고 또 한가지는 현실적 육체적인 조국이 바로 그것이다. 권자의 경우에는 옛날 어느 추운 겨울밤 화롯불가에 뜬 밤을 꺼내어 곱질을 까며 “아가 자 이것 먹으렴” 하며 입에 넣어주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따뜻한 체온마저 느끼는 어머니의 환상이 마냥 좋아질수 있는 것이고 소년시절 장년시절의 많고 많은 추억이 묻혀진 동화속에 나오는 권설의 고향같은 곳이고, 후자의 경우는 생동하는 모습을 만끽하고 나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희망과 약속을 주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조국이라는 데에 이러한 두가지 개념중에 어느하나도 그 비중이 더하거나 못하거나하는 비교점은 없다.

나는 바로 어제의 후계자이고 어제의 존재가 없이 현실에 존재할수는 결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어제의 상속물은 모두가 바로 나의 보배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보배들이란 바로 구석구석에 알알이 새겨져 있는 많은 추억들이고 그 추억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절절한 녀념이고 같구다. 어느 누구도 그 추억이란 상속물들중에 어느 한가지도 손실할수 없는 알뜰한 육망이고 절실한 호소이다.

“조국은 어머니의 품”이라는 어느 유명한 본의 말씀도 생각한다. 많은 대상물 중에 하필이면 그분은 어머니에 비유했을까 하는 것에 이제야 고개가 아예 위로 끄덕여 진다.

어머님의 추억에 남고, 귀고 그리고 풍요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헌신 바로 그것이었고 꾸짖는 말씀은 항상 약속이 되어 나를 성장시켰다.

그분의 마음의 자장가는 나에게 달콤한 수면과 안정을 주셨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고귀한 상속물을 가며지만 생각할수 있겠는가.

“조국은 어머니의 품” 나의 성장은 바로 여기서 부터 시작했고 그 추억은 영원한 나의 보배들이고 그 보배들은 나만이 소중히 간직할수 있는 오직 유일 무일한 상속물이다.

몇 년전에 시애틀 타임스 신문사에서 보도된 기사중 “... 동양의 감동이...” 운운하며 보도된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 아코마 뉴스 트리뷴지에 실려진 국히 음성적이고 비평적인 고포사회의 생활상을 기사화한 문제도 있었으며 또 얼마전에는 가장 신빙성을 주장하고 막대한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타임즈 잡지에 실려진 한국에 대한 국히 냉대적이고 저열적이고 국히 분개적인 기사가 실려 나의 마음에 갈등과 나름데로의 고운(보다 차원적인 입장에서)을 느껴 본적이 있었다.

이러한 뼈저린 비판을 받았고 너무도 총란히 생각하였다. 모름지기 이것이 나의 현실적 육체적인 조국이 부여하는 포상(표현에 미안하지만)이었다. 자존심이 조금은 움을 거렸고 관대한 용서에 약간의 주저스러움을 느낀것은 사실이다.

나는 지금 현실이라는 어전에 발을 딛고 서서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은 모두가 육체적이다. 나의 상처가 이웃에게 불쾌하게 보여진다면 결코 그것이 유쾌감이 될수 없다. 그러나 나의 어느곳에 아픔이 있다면 결코 주저할 필요는 없다. 상처라는 것은 결코 권 치료를 요구치는 않는다. 상처라는것을 느낄때 치료의 필요성이 불가피함은 사실 재고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상처의 무방치함은 결코 오염확대의 근원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국히 간단히 정리된 두가지 개념에 대한 “조국애”이고 또한 철학같은 의무감 같은 절실함이다.

어느날 잠자리에 누워 있을때 불연히 떠오르는 감정을 휘감겨 써 보았던 낙서를 다음에 옮겨볼까 한다. “... 권략... 오백하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다 끝내 담배 한대를 피워 물었다. 천장이 눈에 보였고 좌우 사방을 무의식적으로 둘러보던 나의 시야에 조그마한 달력(한국 여성의 반복을 차며임은)

이 비추었고 화사하게 차며임은 단정한 모습으로 벽 허진 여자(배우로 간주 됨)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순간적이거나 니킴을 때아리는 자각이 있었다.

“전쟁이란 있을수 없는 거야, 있어서는 안때, 절대 있을수 없어” 잔잔하나마 비장한 소용돌이 속에 잠겼다. 저호록 화사한 웃 차림과 우아한 몸매와 이음도록 귀여운 저 미소떠온 얼굴에 나는 학안 색깔의 육양목 저고리와 까만 색의 육양목 치마로 변장된 모습으로 바꾸었고 웃음 잃은 저 앞면에 고흘스런 생활의 일면을 생각했다. 화사하고 단정된 모습에 미움도록 귀여운 미소를 담고있는 저 여자에게 만약에 자유를 잃고 내 조국의 민주를 잃었을때 돈값된 저 여자의 흰색 육양목 저고리와 까만 색의 치마에 잃어버린 자유는 저 여자에게 어떠한 인생을 의미할까. 매일 같이 계속되는 근로의무가 저 여자에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느끼게 해 줄것인가.

블터지고 재잘 거리던 저 얇팍한 입술로 “동무”라고 불려야 할때 “속이야”, “혜면이” “아! 그 얼마나 비참 하냐” 입술을 깨물고 피를 호하며 죽어버리고 싶을 때지”, 매일 계속되는 근로 의무에 지쳐 떨어진 저 마음에 저 여잔 과연 어떠한 자기존재를 발견할 것인가. 폐허된 이 세계와 비유되는 그 호록 자유스럽던 옛날의 그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소중함을 느낄까.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자유”가 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할까. 재잘거리던 그 평범했던 옛날의 대화속에 “자유”가 있었고 야밤에 창문을 통해 사서 먹던 도토리묵이나 메밀묵의 정다운 정경이 있을 때 먹고리는 사람과 남산을 거닐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속삭이던 대화의 메아리가 있을 때고 힐일이 호주머니를 굴, 어가며 팔죽 사먹던 어느 눈오던 겨울 초 저녁의 그리움이 있을 때며 졸업식날 저녁 생전 입에 대보지도 못했던 술잔에 어른이 된양 어깨를 펴쳐보며 대로를 활보 했을때 귀인의 정겨운 산사에 가고 만장했던 서민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아, 자유 그얼마나 그리운 것이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것이 겠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것 가슴, 그속에 얼굴을 묻고 언젠고 떨어지고 싶지 않도록 절실한 마음, 이것은 나의 절실한 기도다.

때때로 느껴지는 허탈감이 있고 항상 내 마음에 기습하는 나만이 불행한것 처럼 느끼는 국해가 있다. 나는 이로록 소중한 보배의 의미를 너무 모르고 지내온 것처럼 느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행복을 느끼지 못 했전 불행을 갖고 있었다. 이것 이상의 바램이 과연 무엇에 필요할 것인가.

내 조국의 자유, 영원 하여야. 뒤늦게나마 조그마한 두손으로 간절히 영원함을 빌며 저 웃음 짓는 단정한 모습의 저 여자에게 학안 저고리와 까만색의 치마가 둘러쳐서는 결코 안된다. 한마리의 조그마한 새가 되어 막막한 대해 악도 같고 높고 높은 푸른 저 하늘과도 같은 곳을 훨훨 나르며 그 자유를 만끽하면 다.

..... “ 4월 20일 저녁 ”

끝으로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그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 형상과 동작은 얼마나 명확하고 율동한가, 행동은 천사와 같고 이해력은 신과 같다. 세계의 미묘 만물의 영광이다”.

위의 구절은 문호 셰익스피어의 햄트렛 2막 2장에서 나오는 구절중의 하나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다. 오늘의 주저는 내일의 불행을 초태하고 시작은 반드시 결과를 알게 한다. 노력해보고 싶다 두개의 조국에 결코 부끄러움을 갖는 내가 되고 싶지는 않다.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마음씨가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웃에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들 딸이 없어서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으나, 혼자사는 할아버지는 욕심이 굵고 심술이 사나와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고, 둘이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씨가 착해 동네 사람들로 부터 동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사는 욕심장이 할아버지는 핀둥 핀둥 놀면서 남을 속여 살림을 빼앗기도 하여 남부럽지 않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으나, 둘이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날 그날 나무를 해다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어서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마음씨가 착한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파랑새 한마리가 싱그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파랑새를 따라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맑은 샘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그 샘물을 한 움큼 손으로 쥐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기운이 솟고 힘이 펴지는 젊은이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씨가 착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짐지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은 할머니와 함께 그 샘물을 찾아가 할머니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부부로 변한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사는 심술보 할아버지가 그 물을 보고 가만 있을 리 없습니다. 여러 차례 졸라서 그 샘물로 허겁지겁 달려 갔습니다. 그런데 심술보 할아버지는 그날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산속으로 심술보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젊어지는 샘물에 가까와졌을 때, 웬 아기가 요란하게 울어 짓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샘물에 다다르니 심술보 할아버지는 온데 간데 없고, 그 할아버지의 옷에 싸인 아기가 힘차게 울어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술보 할아버지는 욕심이 과한 나머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그만 어린애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음씨가 착한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기를 아들로 삼아, 더욱 부지런히 일해서 단란하게 살아가고 합니다.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June 20, 1983

Times Inc.
The President
Rockefeller Center
New York, N Y 10020

Dear Sir:

In behalf of the Korean-Americans in Washington State, we wish to register our strong protest against the TIME concerning the recent article, "Los Angeles - America's uneasy New Melting Pot," in the June 13, 1983 issue.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s a history of immigrants from abroad. They were mostly the political, religious and economic undesireables in Europe who chose America as a land of promise and freedom. They worked hard, sacrificed much and helped America what it is today.

The influx of foreign 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continues even now.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e twentieth century immigrants are not largely from Western Europe as those of previous centuries. They are from all over the world. However, their goals, expectations and problem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ir Anglo-Saxon counterparts. Unfortunately, your article on the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Los Angeles area expresses racism and media discrimination against non-white immigrants who despite their many built in handicaps are working hard to be adopted into the mainstream of American society. Your racially biased writings help form attitudes of irreparable harm toward minority immi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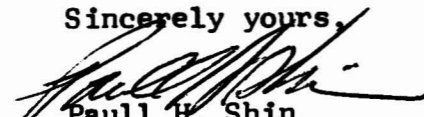
We are, particularly, disappointed about your treatment of the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Your appraisal of Koreans being unable to integrate into American society is not only without foundation but damaging to the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bove all, we are most upset about your employeing a Japanese, U.C.L.A. sociologist Harry Kitano to evaluate Korean residence in the Los Angeles area. His regards for the Koreans as "the Mortimer Snerds of America, cannot learn the language, their food smells and they cannot express themselves," suggests not only obvious racial discrimination, but more importantly, his remarks reflect a carry over historical enmity. There are numerous Korean experts who could have provided more accur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Korean communities. Your reliance on a Japanese damages the images of Korean immigrants and revives historical Korean-Japanese animosity which both countries are now trying hard to heal. You are, therefore, responsible for this unfortunate result, in the name of freedom of press.

Time Inc.

June 20, 1983

Korean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a relatively new, but rapidly growing one. Koreans on the whole are an industrious, hard working people willing to adjust to and learn about their new way of life and anxious to establish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here is a higher percentage of Koreans registered in th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more college degree holders and more professionals than in any other minority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a short history of immigration, the percentage of Koreans who succeeded and are making substantial contribution to America is constantly increasing.

We, therefore, strongly urge you to make a more careful analysis and truly attempt to provide accurate and unbiased information on the Korean minority and other minority group.

Sincerely yours,

Paul H. Shin
president

cc: Time Inc. Los Angeles Office
Southern California Korean Association
California State Human Rights



HO PARK ANTIQUES

浩朴古美術

고려 이조자기 이조가구 평풍·족자·액자
브래스 제품 고민속품 불교미술 선물용품
염가매출 및 고가매입

(206) 343-5577

Open 11:00 - 6:00 p.m.
Closed on Sunday
2018 2nd Ave. Seattle, WA 98121



DEAR YOUNG FRIENDS,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who graduated from school whether it be high school or university during the year of 1983. Your graduation is a major accomplishment and positive preparation for the future. May I also thank all those who successfully completed a year's academic studies and have advanced to a higher grade level.

After having emigrated to America as a young boy and having lived in this country nearly thirty years, I sometimes wish I had known then what I know now, so I could have approached life differently and perhaps accomplished more. Please allow me to share a few thoughts especially for Korean immigrants wishing to make the United States a permanent home. Hopefully, these suggestions may help you in your preparation for a journey of your life.

First of all, may I recommend pursuing as much as education as possible. When I first came to the United States, I did not have much formal education and I was already seventeen nearly adulthood. I had a decision to make about whether to try for an education at this late date or to join the job market. With fear I chose education. I bypassed a high school education by studying for and passing the G.E.D. examination; then I went to the university. With a language handicap, lack of educational training and being from a foreign culture, I cannot describe to you in words how difficult and how much sacrifice went into these years in school. However, in retrospect, I am very satisfied because greater opportunities have opened to me with each educational advancement.

Therefore, I feel the best advice I could offer you is to encourage you to pursue a higher education.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will soon have to confront the job market. You will be one among many applicants often competing with American counterparts. Expectedly, you may confront various problems with language competency, Western managerial methods, in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differing racial backgrounds. You need to compensate for these deficiencies if you are going to reside in this country. The best way is to become better qualified, better trained and better educated than your competitors. I feel strongly this is why education is so important in preparing for the best in whatever endeavor you attempt to accomplish. As Socrates once said, "knowledge is power" and I feel knowledge is the best preparation for any kind of job and also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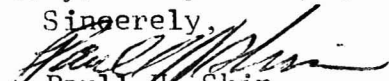
Secondly, during the Korean War I was adopted by an American dentist in 1953. When I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naturally, I tried to study, understand and educate myself in the "American way." I wanted to be a true American, thinking and behaving like an American often forgetting my Korean background. Subsequently, I became Western in my attitude, thinking and behavior until 1965 when I moved to Hawaii to teach at Brigham Young University, Hawaii campus. There, for the first time, I encountered many Korean students and began associating with those of

an Eastern heritage. I began to learn about and to appreciate my ancestral civilization. These experiences helped me to better understand myself and become a better Korean and American. Most of you came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your parent's decision. Perhaps, some of you may have been born here. In all probability, you will continue living in America. Undoubtedly, you are attending American schools, have American friends and will be working with Americans. Nevertheless, you cannot renounce your racial identity or Korean characteristics even if you try. As a matter of fact, such attempt will pain you as it did me. Today, I feel grateful and fortunate to have been born in Korea and live in the United States. I feel very proud to be a Korean for Korea has a rich civilization and cultures which offeres me a firm foundation, but I also feel grateful to be here in America for its civilization and culture have helped me to become a better person. I have learned that racial and geographic differences, notwithstanding, as human beings, we all have common feelings - joy, sadness, desire and compassion. This convinces me that we are all children of God and that we are all His creation. Both East and West have valuabl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virtues which with a proper blending, can create a utopia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Examine both negatives and positives of both cultures, and you will find good qualities from both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that will emerge to form your identity, pursuit of satisfa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 believe it is possible to find a dynamic set of values. You have a cultural identity that is valid and exportable, but before you can share these values you must understand and acquire them.

Third, from birth on I have been assisted by many people without whose aid, I could not have achieved all that I have. Also I have been privileged to help others on occassions. During the course of helping people, I have realized how wonderful it feels to be in a position to help others. For example, the other day I was able to help a Korean immigrant obtain employment. He looked so pleased. His expression of contentment filled my heart even with greater happiness. I felt so grateful that I was in a position to help, because of the turn about in my training, experience and education.

I believe your bi-lingual background, bi-cultural and educational preparation will place you in excellent position to serve others both in the Korean and American communities. As you know, the Korean community is growing rapidly and there are great demands for services and assistance. With your unique background, you can make the world your stage and involve yourself with world citizens in the cause of humanity. The reward, in the final analysis, will be a much greater satisfaction for helping others. Many of you, I hope, will become leaders in the Korean community which needs your support.

And finally, setting priorities in life is a difficult decision. I went through a stage where I was preplexed with myself in terms of my identity and value system. There is a great need to be true to yourself and to your family. The family is the oldest and most important human institution. There is no place where you can find the happiness and satisfaction outside your family. May you learn to retain the importance of Eastern family system and prepare yourself towards Eastern family continuity. Above all, take time to enjoy life and best of wishes to you in your every endeavors.

Sincerely,

 Paul H. Shin
 President

젊은이들에게



한인회장 신 호 범

6월은 젊은이들의 달인것 같습니다. 방학과 졸업식이 이달에 있으며 끝나는 방학인가 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졸업이 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 신심한 축하를 드립니다. 졸업은 장래를 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와서 그 당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것도 벌써 삼십여년이 됩니다. 그때 누가 좀 충고하여 주고 도와 주었었다면 지금 저의 입장은 좀더 진보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청년 여러분에게 제가 평소애 느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가 생각한점을 정리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의 청년들이 자기자신을 인식하는데 노력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과거를 회상하여 볼때 역시 이점이 가장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생의 목적을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야 하였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자기자신을 모르면은 장래를 알기 어렵고 목적을 세울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하여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는것이 첫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점을 들고 반성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건전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여 열등감을 가지게 까지 하는것은 항용 말하는 겸손이 될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열거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을 가져보는것을 경솔하다고만 보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부족을 반성하는 한편 자기 장점을 더욱 키우므로써 자기 자신에게 긍지를 느낄수 있고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나아갈수 있을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긍지를 가져야만 큰 목적도 세울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이를 힘과 의욕도 얻을수 있는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오늘의 청년들이 자기 가족과 가까이 하며 가족을 찾을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선조를 이해하며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선조의 이해를 통한 자신의 이해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질서있게 하고 조화를 가져올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것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여 언제나 좋은 기초가 될것입니다.

셋째로 저는 오늘의 청년들이 한국인이 된것에 긍지를 느낄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때 미국 군인의 가정애 양자로써 왔습니다. 그때 저의 희망과 의욕은 미국사람이 되는것이었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태도도 미국식이 되려고 노력하여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1965년 하와이 대학에 교편을 잡고 이사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한국사회와 동포들을 만나게 되어 한국을 다시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다시 배우며 언어를 배우면서 그곳에서 저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고유풍습과 전통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가를 알고 세삼 놀랐었습니다. 특히 선조를 생각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어른을 대접하는 미풍과 가족이 단합하여 결속하는 동양의 가족제도와 도덕제도는 서양이 많이 배워야 한다는것을 세삼드렸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했었지만 가족이 가까이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하는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필요할뿐 아니라 또 건전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권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족제도와 도덕제도가 이 미국땅에서도 큰 가치가 될것을 믿으며 우리 조상과 그리고 문화전통에 자랑과 긍지를 아니느낄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타고난 핏줄과 그리고 우리 배경인 전통과 문화는 버릴수 없습니다. 미국이지만 한국을 잊지않고 우리문화를 배우고 또한 서양의 문화도 배우며 양쪽의 장점을 택하여 우리의 철학을 새우므로써 누구보다 더 의미있고 이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세계를 무대로하여 광범하게 생활할수 있는 기초를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긍지를 가지며 다른 문화로 함께 연구함으로써 준비하여야 할것을 느낍니다.

넷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이상과 포부를 가져주실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준 모든 축복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건전한 가정의 관념과 자랑할만한 문화적, 도덕적 전통을 기초로 가지고 있으니 그 호대외에 장래에 보람있는 일을 할 큰 목적을 세워야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회에 여러분의 봉사와 협조를 기다리고 있는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책임맡고 있는 이 시애틀 한인사회에도 하여야 할일이 너무 많은데 능력의 부족과 일손의 부족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 사회가 늘어가고 있는 이때 앞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뜻있는 젊은이의 재능을 빌려야 할 기회가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큰 요구를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큰 목적과 포부를 세워 주시기를 권합니다.

옛 성인이 말하기를 "너희보다 더 큰일에 너희 마음과 몸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바칠수 있

는 그러한것을 갖이더 그것에 큰 신념을 갖인 이의 생
활은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으며, 행복하리라고 믿습니
다. 사회와 인류의 문제에 봉사하기 위하여서도 또
한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서도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세우며 지금 부터라도 준비하고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여 가는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을 발전
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생에서 희열을 느끼는 원천이라고 봅니다.
제가 Utah의 대학에서 공부할때의 기억이 새삼 남니
다. 저는 교육의 배경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공부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나 나올때 마다 교수에게 가서 물어서 확인
하지 않으면 알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이 싫어하고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들 찾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지는 모르지만 어려
움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지만
만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 그렇게 하지 못하
었다면 지금 딱 불행하여 있으리라고 느끼고 그때 그
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가 도움을 자주 구한것
이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후로도 제
생애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행하였기 때문에 다행
하였다고 생각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은 같이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무릅쓰고 인내와 용기로서 처리하여 가
는 태도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지만 최고의 교육을 추천합니다. 제가 18세때
미국에 왔을때 한국에서 별로 교육을 받지못하여 직장

에 나가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장래를 생각하니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등
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대학부터 나가게 시작
하였습니다. 공부하기에 어려운점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공부하였음을 감사
히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께서도 직
장이나 미국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할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인종차별, 언어문제, 또는 미국사회
의 일반지식에 관하여 미국인들과 경쟁하기에는 어렵
습니다.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은 우선 배워야합
니다. 남보다 더 지식이 있어야 하며 유능하여야만
미국사회에서 성공할수 있습니다.

희랍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지식이 힘이다" 라는것과
같이 우리도 교육을 힘으로 하여 장래를 준비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여 권하는 바입니다.

인생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천
부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공지를
느끼며 인류사회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큰 요구를 주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생소한 미국의 사회
에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을 느끼지만 선조가 가
르쳐준 높은 도덕관념과 문화전통의 유산에 공지와 자
랑을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터득하여 갈수 있을것이며
오히려 이 서구 사회에 공헌을 끼치면서 봉사할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우리 이민 사회와 미국과 인류를 가족
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가 이바지 할수 있는 목적을
향하여 준비하여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철수 구제운동을 아세아계 청소년들이 구성

한국 이민으로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게된 이 철
수 씨를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또 아직도 남은 재판과정
의 비용을 도와 주어야겠다는 목적을 갖인 운동이 한국
인이 아닌 아세아계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 의하여 구성
되고 몇가지 프로그램까지 계획되고 있다. 본 운동의
주인공은 중국계 미국인인 Mr. Tom Eng을 중심으로하는
일본계, 필리핀계등 및 청년들로서 지난 5월 초 경식발
족을 보아 구성계획부와 프로그램부를 작성하고 임원을
선정하며 년간 계획도 작성하였다. 이들 중에는 한국
계 청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체 이름은 이 철수의
시애틀 친구(Seattle friends of Chol Soo Lee)라고 하
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샌크라멘토의 이 철수 구조 위원회
본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에는
지역사회원들에게 이 철수씨를 직접 대면 시키고 대학
를 나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필
리핀인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은 아세아계 소수민족으로서
언제 어느곳에서 이 철수와 같은 경우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 있으며 이 철수씨는 한국인이지만 그의 문제
는 모든 아세아인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이 철수 의
문제는 혹 이들의 운동과 활동에 관심을 갖이신 분은 다
음에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Mr. Tae-Soo Lee" (367-6525)

Mr. Tom - Eng (322-6476)

직장 : 285-3020

한인회에서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적극 후원을 제공
하여 줄것을 다짐하였다.

American Cultural Exchange:

비영리 영어훈련단체 ~한국인의 영어교육을 도와주고 싶어하다~

American Cultural Exchange(미국 문화 교류)는 비영리
교육단체로서 1973년 이래 십여년간 워싱턴 주에서 봉사
하여 왔으며 집중적 영어능력 향상기관(Intensive English
Language Institutes)을 주내의 여러 대학기관에 설립하여
외국유학생을 포함하여 영어를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
어교육을 맡아 온 기관이다. 여기에 채용된 교사들은
언어교육의 전문적 배경과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근의 언어 교육원리에 입각하여 전반적 의사소통(Com-
munication)능력인 듣기, 말하기, 작문짓기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 기관은 주내에 있는 많은 사립학교에 위치하여 있어
서 한국인 학생들이 이 기관에서 영어를 공부한뒤 대학에
직접입학이 될수도 있게 조직이 되어있어 외국인 학생이
이용할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어 교육을 마친
경우 대학입학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주므로써 TOFEL이나
Michigan Tests 를 대신할수 있게도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학습법도 채택하였으며 매년 십이개국
어의 4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받
아 나가게 되고있다. 지난 봄에는 한국어도 필요한 언
어로써 가르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가르
치게 될것이다.

만일 한국학생으로서 워싱턴주내의 대학입학을 위하여
영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나 기타 영어능력향상이 필요한
사람은 633 - 3239에 전화를 하여 버는 이 B바드씨(Mr.
Burton E. Bard Jr.)나 그의 직원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국인의 많은 애통을 바라고
있다.

(더 자세한점에 대하여는 이 본보 Page 34 를 참조하시요)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 여 협 사
C AND C TRAVEL SERVICE

523-7057
* 24시간 *

10212 5th Ave . NE #220
SEATTLE , WA 98125

북문이전

NORTH GATE WAY

노스게이트
사립센터

NE 103ST

5th Ave

IATA, ATC, PATA 회원

●국내외 항공편매 (할부도 가능) ●각종 여행수속 ●항공입국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호텔, 렌트카 예약 ●이민, 법률 안내
●각종 번역 및 통역 ●항공 보험

중 앙
식 품

- 한국, 일본식품
- 신선한 생선 및고기류
- 싱싱한 야채류
- 선물, 일제그릇

762-5620

9641 15TH AVE S.W.
아침 9:00 ~ 저녁 9:00

한인회 재무보고 (수입지부)

존경하는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민 여러분들께서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이 협조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한인회에 정성껏 보내 주신 회비나 기부금에 대하여 몇가지 부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한인회비를 납부하시거나 회사금을 내시는 분 들께서는 현금이 아닌 수표나 머니오더를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표에 한인회비, 한인회 찬조금(기부금), 건축기금또는 한글학교 기금등 명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83년도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일인당 \$10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 부일 경우에는 \$20이며, 18세 이상의 가족 1인 이상 추가시마다 10불씩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떤 명목이던 한인회에 회사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본 한인회에서 영수증을 우송해 드리겠으며, 한인회보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5. 수표를 쓰실때에는 성명을 약자로 쓰시지 마시고 완전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미 약자로 프린트된 경우라도 그것을 완전히 다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Kil T. Hong 홍길동인저 홍길동인저 모르오니 "KIL TONG HONG" 아니면 "홍길동" 이렇게 기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한인회보에 발표된 명단에 회사하신분의 성명이나 혹은 빠진분들이 있으면 곧 한인회 사무실 (전화: 362-45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사무실에는 매주 월-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근 여직원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부 상조 하고 참석하여 건설한 한인회, 발전하는 한인사회를 만들도록 고민들께서 적극협조하시기를 부락 드리겠습니다.

고민 여러분간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1983년 6월

재무부장 박태호 드림

1983년도 5월 . 6월

회비. 기부금. 광고비 수납내역

(1) 기부금 (특별 찬조금)

김상철	\$ 100.00
김병삼	\$ 40.00
최종기	\$ 50.00
임옥란	\$ 20.00
곽상영	\$ 100.00
강동인	\$ 100.00
이순모	\$ 100.00
엄도승	\$ 100.00
Mrs. Armstrong	\$ 200.00
James Kim	\$ 100.00
이현기	\$ 100.00
신호범	\$ 100.00

합 계 \$ 1,110.00

(2) 한인회관 건립기금

DR. Fred W. Fischer	\$ 20.00
도명재	\$ 100.00
엄도승	\$ 100.00
신호범	\$ 100.00
채경수	\$ 100.00
한만섭	\$ 100.00
김홍식	\$ 100.00
이동립	\$ 100.00
오혜경	\$ 50.00
심상국	\$ 30.00
오수당	\$ 60.00

합 계 \$ 890.00

NORTH WEST ETHNIC FESTIVAL 찬조금	
주 Seattle총영사관	\$ 300.00
ETHNIC 행사때 불고기 만두판 수입금	\$ 909.75

합 계 \$ 1,209.75

(3) 한인회비

김기준	\$ 10.00	KEUN J. BYUN	\$ 10.00
송찬우	\$ 10.00	손희섭	\$ 30.00
김성일	\$ 20.00	이삼광	\$ 20.00
임종원	\$ 15.00	이유호	\$ 40.00
김영삼	\$ 10.00	이기면	\$ 20.00
조성택	\$ 20.00	심상국	\$ 20.00
김재호	\$ 100.00	이선복	\$ 25.00
조성욱	\$ 20.00	이로섭	\$ 20.00
김영남	\$ 20.00	최창식	\$ 30.00
김복순	\$ 20.00	허신	\$ 20.00
전기수	\$ 15.00	전계상	\$ 30.00
홍경선	\$ 20.00	임초기	\$ 30.00
최충건	\$ 15.00	이종찬	\$ 50.00
박기택	\$ 20.00	백지현	\$ 15.00
박종규	\$ 10.00	김형식	\$ 20.00
윤용수	\$ 20.00	김종걸	\$ 20.00
오계희	\$ 20.00	한만섭	\$ 20.00
오혜경	\$ 20.00	황익덕	\$ 20.00
이종은	\$ 15.00	Louis Young-Hur	\$ 20.00
지장환	\$ 20.00	한상열	\$ 10.00
Judd성욱	\$ 10.00	김광덕	\$ 20.00
김경환	\$ 15.00		

합 계 \$ 935.00

(4) 한글학교 피크닉 찬조금 및 보조

광종세	\$ 100.00
조성욱	\$ 70.00
James 이	
(계일식점)	사랑한통을 어린이 야유회기증.
합 계	\$ 170.00

(5) 한국의 날 행사 찬조금

한국의환은행 (시애틀 지점)	\$ 300.00
김수잔	\$ 10.00
이영주	\$ 100.00
이동립	\$ 1000.00
시애틀 연합 METHODIST 교회: 김종원 목사 시무	\$ 200.00
합 계	\$ 1,610.00

"정경" 이영주 처과 5월호에 \$ 70불을 \$ 100불로 그리고 이동립 이사장 5월호 \$ 415불을 1000불로 정경함.

청도식당

TSING TAO

◎순한국식중화요리전문

◎수타국수, 칵테일완비

영업시간

화-목: 12:00 - 10:00PM

금-토: 12:00 - 11:00PM

일: 1:00PM - 10:00PM

월: 휴일

전화 367-9339

13744 AURORA AVE. N.
SEATTLE, WA

이영주 치과

타코마 지역 581-1412

진료일시 화, 목, 토(10:30~6시)
진료장소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09

시애틀 지역 775-3456

진료일시 월, 금(아침9시~6시)
수(낮12시~저녁9시)
진료장소 Stevens Dental Center
30728 - 76th Ave W.
Edmonds, WA 98020

『 편집 후기 』

이번호에도 좋은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교포사회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 마련되길 바라며, 취미생활과 교포 상호간의 건전한 단합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해준 조기 축구회 (회장: 김길량) 주치의 축구대회는 뜻깊은 일이었고 또 이지역 교포사회에 첫 독창회를 마련한 정 매인씨 및 그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즈음 타임즈의 자극적인 보도를 인한 분노가 한인사회에 퍼지고 있는 이때 Donnie Kwak 양의 한미 수교 100주년을 돌아보는 글을 실어본다.

◎ 지난 회보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투고가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한인회보 1983년 제4호
발행인: 신 호 범
편집인: 박 건 흥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206) 362-4500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술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회호

성형수술 전문의

DAVID A. EKLAND, M.D.

CERTIFIED - AMERICAN BOARD
OF
PLASTIC SURGERY

쌍카풀 수술
유방 확대
각종 교정 성형수술

126 AUBURN AVE,
AUBURN, WA 98002

939-1440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
(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 (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이 규 영 계 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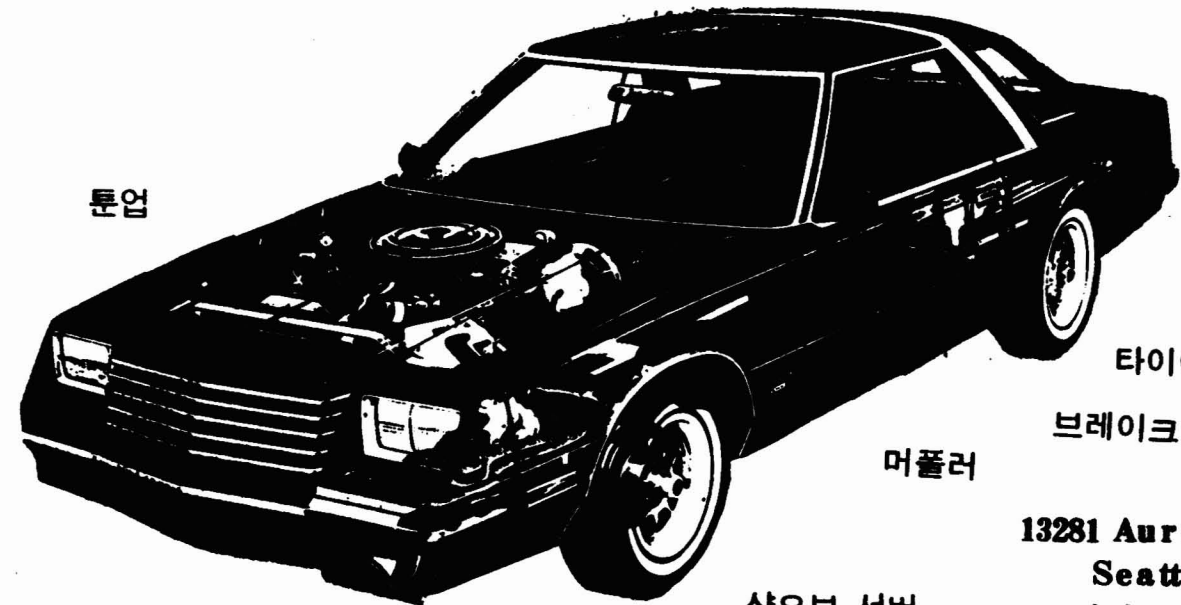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컴퓨터로 장부정리 ※ 퇴직 연금 상담
※ 일반 인컴 택스 ※ 세무상담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공증업무
※ 기밀 절대보장

623-4181-3

2809 4th Ave. Seattle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تونب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362 ~ 4449

삭오브 서버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트랜스 밋송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荣味亭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 나이트 클럽(김용세와 그의악단)

※ 가족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 명에서 150 명 400 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YOUNG ME RESTAURANT

623-3112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